

Next Generation Conference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Thursday August 8, 2013

Tulip Hall, Hotel Kukdo

2013년 8월 8일 목요일

국도호텔 튜울립홀



Next Generation Conference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Thursday August 8, 2013 9AM
Hotel Kukdo, Seoul

2013년 8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국도호텔, 서울

목차

코리아 프렌드십 소개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프로그램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프로그램

넥스트 제너레이션 타운홀 미팅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에세이

Table of Contents

About Korea Friendship

Next Generation Conference Program

EPIK Young Leaders Conference Program

Next Generation Town-hall Meeting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Essays

코리아 프렌드십 소개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의 개별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을 통합하여 국제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적화한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탐구, 소통, 공감이라는 핵심어를 바탕으로 [한국을 듣다], [한국을 말하다], [한국과 만나다]라는 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행사	일시 및 장소	비고
오리엔테이션	2013. 6.17(월) 오전 10시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빌딩 18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설명 및 학사일정 공유
코리아 프렌드십 아카데미쿠스	2013.6.18(화)~7.11(목) 매주 화목 오전 10시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빌딩 18층 대회의실	한국사회 탐구 8회 연속강좌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2013.8.8(목) 오전 9시 국도호텔 튜울립홀	에세이 공모전 및 컨퍼런스
넥스트 제너레이션 타운홀 미팅	2013.8.8(목) 오후 6시 국도호텔 튜울립홀	파티 형식의 학생 네트워크 프로그램
주한외국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일정 아래 참조	총 5회 개최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	2013.12.2(월) 오후 6시 롯데호텔 에머랄드룸	과정 이수자 수료식

About Korea Friendship

The KF-EAI Korea Friendship Project, co-hosted by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East Asia Institute, is an educational packag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siding in Korea. The project consists of three main programs; 1) Korea Friendship Academicus, 2) Korea Friendship Communicus and 3) Korea Friendship Empathicus. These programs are composed of lecture series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in which students can “explore,” “communicate” and “empathize” with Korea.



Program

Event	Time and Location	Information
Orientation	Monday, June 17 at 10:00AM Eugene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 Building 18 th Floor Main Conference Room	Introduction to the Korea Friendship Program
Korea Friendship Academicus	June 18~July 11 (Every Tuesdays and Thursdays from 10AM) Eugene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 Building 18 th Floor Main Conference Room	Lecture series for discovering the various aspects of Korea
Next Generation Conference	Thursday, August 8 at 9:00AM Hotel Kukdo, Tulip Hall	Essay Contest and Conference
Next Generation Town-hall Meeting	Thursday, August 8 at 6:00PM Hotel Kukdo, Tulip Hall	Networking Gala Program
Roundtable with Ambassadors to Korea	Schedules are listed below	A total of 5 roundtable discussions
Korea Friendship Gala	Monday, December 2 at 6:00 PM Lotte Hotel	Commencement Ceremony (Certificate for students who complete the program)

한국을 듣다 (Korea Friendship Academicus)

코리아 프렌드십 아카데미쿠스는 한국사회 탐구를 위한 연속강좌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유학생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외교안보, 교육 등 캠퍼스 너머에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8회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강좌	강사	일정
한국을 듣다 Korea Friendship Academicus	· 한국 국회 이야기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6/18
	· 한국 교육 이야기	이준석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6/20
	· 한국 정치 이야기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6/25
	· 한국 언론 이야기	강인선 조선일보 국제부장	6/27
	·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	7/2
	· 한국 사회 이야기	김윤희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 사무국장	7/4
	· 한국 외교와 안보 이야기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7/9
	· 한국 문화 이야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경희대학교 교수; 아시아인스티튜트 소장	7/11

1. 한국 국회 이야기 :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자 현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대표가 들려주는 한국 국회 이야기.

2. 한국 교육 이야기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자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로 재직 중인 이준석 대표가 들려주는 한국 교육 이야기. 한국 교육의 특징과 한국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3. 한국 정치 이야기 : 강원택

국내 대표 정치학자 중의 하나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들려주는 한국 정치 이야기.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원리로 운영되고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4. 한국 언론 이야기 : 강인선

중군기자, 해외특파원, 논설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권의 저서를 낸 바 있는 조선일보 강인선 국제부장이 들려주는 한국 언론 이야기.

5.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 : 김병국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국립외교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병국 고려대 교수가 들려주는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

6. 한국 사회와 문화 이야기 : 김윤희

아시아 소사이어티 김윤희 사무국장이 들려주는 한국 사회 이야기.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목표로 오랜 기간 동안 국제기관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윤희 사무국장의 강연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 한국 외교와 안보 이야기 : 전재성

국내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인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들려주는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한국 외교와 안보 이야기.

8. 한국 문화 이야기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푸른 눈의 선비” 경희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교수가 들려주는 한국 문화 이야기. 예일대 학사, 도쿄대 석사, 그리고 하버드대 박사 학위를 받으며 동아시아의 고전과 역사, 문화를 25년 넘게 연구해 온 이만열 교수의 강연을 통해 한국문화의 깊이와 그 현재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orea Friendship Academicus

Korea Friendship Academicus is an eight-part lecture series to help international students advance and comprehensively understand various aspects about Korea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society, media,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and education.

Program	Lectures	Lecturers	Dates
Korea Friendship Academicus	• National Assembly in Korea	Roh, Hoe-Chan/ Co-chair, Progressive Justice Party	6/18
	• Education in Korea	Lee, Jun Seok/ Representative, Edushare	6/20
	• Politics in Korea	Kang, Won-Tae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6/25
	• Press in Korea	Kang, In-sun/ Editor, World News Desk, Chosun Ilbo	6/27
	•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Kim, Byung-Kook/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Chancell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7/2
	• Korean Society	Kim, Yvonne Yoon-Hee/ Executive Director, Asia Society Korea Center	7/4
	•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in Korea	Chun, Chaesu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7/9
	• Korean Culture	Emanuel Pastreich/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Director, The Asia Institute	7/11

1. National Assembly in Korea: Roh, Hoe-Chan

Mr. Roh is currently co-chairman of the Progressive Justice Party and former assemblyman.

2. Education in Korea: Lee, Jun Seok

Mr. Lee is a former member of the Emergency Committee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founder of Edushare.

3. Politics in Korea: Kang, Won-Taek

Dr. Kang is currently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ne of South Korea's distinguished political scientists.

4. Press in Korea: Kang, In-Sun

Editor Kang has published a number of books based on her own experiences as a war correspondent, overseas correspondent, and editorial writer.

5.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Kim, Byung-Kook

Dr.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and served as the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nd the Chancellor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6. Korean Society: Kim, Yvonne Yoon-Hee

Yvonne Yoon-Hee Kim is currentl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 Society Korea Center. Ms. Kim is also a professional event planner, non-profit program developer and media communications expert.

7.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in Korea: Chun, Chaesung

Dr. Chun i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ne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s.

8. Korean Culture: Emanuel Pastreich

Dr. Pastreich is a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and director of The Asia Institute in Seoul and has studied the East Asian classics, history, and culture for 25 years.

한국을 말하다(Korea Friendship Communicus)

코리아 프렌드십 커뮤니쿠스는 아카데미쿠스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에세이를 쓰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아카데미쿠스 강좌를 통해 습득한 한국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유학생 스스로가 에세이를 집필함으로써, 커뮤니쿠스는 국제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세이의 테마는 아카데미쿠스의 강의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 유학생들은 아카데미쿠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A4 한 장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커뮤니쿠스 자문교수단은 1차 심사를 통해 이 가운데 5-10편을 선정하여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Next Generation Conference)에서 자신의 에세이를 발표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자문교수단은 선발된 유학생들의 에세이 작성 지도와 멘토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 이야기
강인선 조선일보 국제부장 강의

Press in Korea
Kang, In-sun, Editor of Chosun Ilbo



아카데미쿠스 강의 중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Korea Friends
speaking at Academicus

Korea Friendship Communicus

Korea Friendship Communicus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write essays related to Korea and have it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he topic of the essay may relate to any of the lectures discussed during the Academicus program in which participants have the ability to share and discuss their opinions and ideas about Korea.

Participants will submit a one-page research plan upon the completion of the Academicus program. After submission, the Communicus advisory panel will select 5-10 of the participants' research plans. Once selected, these applicants will have the chance to present their research plans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session of the Next Generation Conference and hold a discussion. These selected participants will also receive guidance on essay composition and mentoring from the Communicus advisory panel.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 강의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Kim, Byung-Kook,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한국 문화 이야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학교 교수 강의

Korean Culture
Emanuel Pastreich,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한국과 만나다(Korea Friendship Empathicus)

코리아 프렌드십 엠파티쿠스(Empathicus)는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본 프로젝트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타운홀 미팅, 주한외국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1. 넥스트 제너레이션 타운홀 미팅

넥스트 제너레이션 타운홀 미팅은 국제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문화적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타운홀 미팅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의 시상식을 겸해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저녁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국제유학생 및 한국 학생들이 주최측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그룹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유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별로 한국 학생들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2. 주한외국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주한외국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은 주한외국대사(캐나다, 인도, 브라질, 호주, 터키 대사)들을 연사로, 한국 국회의원, 정부관료, 학자 및 언론인을 각각 토론자로 초빙하여 한국 외교의 비전과 전망에 대한 서로의 식견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주한외국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은 2013년에 총 5회 개최됩니다.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국제유학생들을 이 행사에 초대함으로써, 한국과 공감하고, 나아가 세계와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	일시 및 장소
David Chatterson 주한캐나다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2013.4.3 (수) 오후 4시 서울클럽
Vishnu Prakash 주한인도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2013. 7.15 (월) 오후 4시 서울클럽
Edmundo Fujita 주한브라질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2013.8.19 (월) 오후 4시 서울클럽
William Paterson 주한호주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2013.9.26 (목) 오후 4시 국도호텔
Mustafa Naci Saribas 주한터키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TBA

3.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국제유학생들과 현재 세대를 이끌고 있는 한국 내 다양한 그룹들이 “미래와 현재가 함께 하는 대화”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수료식을 겸해 열리는 갈라는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 주요 그룹들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공유하고 국제유학생들과 더 많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Korea Friendship Empathicus

The Korea Friendship Empathicus focuses on the networking amongst the Korean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iding in Korea. This program consists of the Next Generation Town-hall Meeting, Roundtables with Ambassadors to Korea, and the Korea Friendship Gala.

1. Next Generation Town-hall Meeting

The Next Generation Town-hall Meeting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to expand a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sharing ideas and cultural exchange. The Town-hall Meeting will be held on the same day as the Next Generation Conference. Korea Friendship participants in addition to Korean university students will be able to network even closer since they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be assigned into small groups and prepare an event in which they will perform in front of the other participants. Through the Next Generation Conference and Town-hall Meeting, the Korea Friendship participants will build strong relationships with Korean students both at individual and group levels.

2. Roundtables with Ambassadors to Korea

Roundtables with Ambassadors to Korea invite ambassadors from countries such as Canada, India, Brazil, Australia, and Turkey as presenters. Discussants of the roundtable discussions consis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men,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and journalists and will share meaningful insights on the prospects and future visions of Korea's foreign diplomacy. Roundtables with Ambassadors to Korea will be held five tim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ill be provided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se discussions an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Event	Time and Location
Roundtable Discussion with Canadian Ambassador David Chatterson	April 3, 4PM, Seoul Club
Roundtable Discussion with Indian Ambassador Vishnu Prakash	July 15 4PM , Seoul Club
Roundtable Discussion with Brazilian Ambassador Edmundo Fujita	August 19 4PM , Seoul Club
Roundtable Discussion with Australian Ambassador William Paterson	September 26 4PM , Hotel Kukdo
Roundtable Discussion with Turkish Ambassador Mustafa Naci Saribaş	TBA

3. Korea Friendship Gala

The Korea Friendship Gala is where future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the current leaders of Korea. During the gala, a commencement ceremony will be held for the participants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urse. The gala will offer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network with various groups of leading figures in Korea who acknowledge the value of the Korea Friendship project.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프로그램

전체사회: 장민주 연세대학교 국제학과

개회식

09:00-09:05 **개회사**
김태환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장

09:05-09:10 **환영사**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세션 1 한국의 교육과 문화

사회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09:10-09:40 **발표**
“왜 한국은 해외에서 평판이 낮은가? - 행정의 특징과 마케팅 실패”
Alexandrova Iordanka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왜 한국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가?”
Xuemei Yang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 대학생 휴학현상에 대한 분석”
Xiaoyue Zhang 경희대학교 컨벤션전시경영학과

09:40-10:20 **토론 및 청중질의응답**
박준상 브라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안중현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제학과
이나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윤진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최은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10:20-10:40 **휴식**

세션 2 한국의 정치와 사회

사회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0:40-11:20

발표

“무소속, 민주진영의 새 멤버?”

Zhi Chen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A Quantitative Research on Korean People’s National Preference –the U.S. or China?”

Jiajia Liu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The Public Role of Protestantism and Its Social Implications for the Gay Community in Korea”

Saul Serna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왜 한국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외국인보다 덜 두려워하는가?”

Haixu Wang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11:20-12:00

토론 및 청중질의응답

박준상 브라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안중현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제학과

이나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윤진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최수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은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12:00

마무리

Next Generation Conference Program

EmCee: Minjoo Jang, Yonsei University

Opening Ceremony

- 09:00-09:05 Opening Address
Taehwan Kim, Director of Public Diplomacy Department of Korea Foundation
- 09:05-09:10 Welcoming Address
Sook-Jong Lee, President of EAI

Session 1 Korean Education and Culture

Moderator Prof. Jae Hyeok Shin, Korea University

- 09:10-09:40 Presentation
- “South Korea’s Lagging International Reputation:
Specific Features of the Administration and Marketing Failure”
Alexandrova Iordanka, Korea University
- “Why is there no Korean Winner of Nobel Prize in Literature?”
Xuemei Yang, Chung-Ang University
- “An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Temporary Leaves”
Xiaoyue Zhang, Kyung Hee University
- 09:40-10:20 Discussion
Joong Hyun Ahn, University of Pennsylvania
Eun Sil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Na 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 Jin Lee, Harvard University
Jun Snag Park, Brown University
- 10:20-10:40 Coffee Break

Session 2 Korean Politics and Society

Moderator Prof. Jae Hyeok Shin, Korea University

10:40-11:20 Presentation

“Standing as an Independent, a New Member of the Democratic Camp?”

Zhi Chen, Kyung Hee University

“A Quantitative Research on Korean People’s National Preference –the U.S. or China?”

Jiajia Li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blic Role of Protestantism and Its Social Implications for the Gay Community in Korea”

Saul Sern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hy are Koreans less terrified about North Korean Threat Compared to Foreigners?”

Haixu Wang, Hanyang University

11:20-12:00 Discussion

Joong Hyun Ahn, University of Pennsylvania

Eun Sil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keun Choi, Korea University

Na 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 Jin Lee, Harvard University

Jun Snag Park, Brown University

12:00 Closing Session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2013

전체사회: 이나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회식

- 13:30-13:40 개회사
 임희현 듀크대학교
 2013 에픽 스파이더스 대표
 강성혜 옥스포드대학교
 2012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최우수상 수상자
- 13:40-13:45 환영사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세션 1

사회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3:45-14:25 발표
 “Conflict Between Classes in Modern Korea: Foundation for Social Development”
 박은영 캠브리지대학교
- “Constrained Cooperation in South Korea's Nuclear Power Policy and Its Side Effect”
 박성윤 한국과학기술원
- 14:25-15:25 토론 및 청중질의응답
 강성혜 옥스포드대학교
 강현민 고려대학교
 박혜연 존스홉킨스 대학교
 지혜수 연세대학교
- 15:25-15:40 휴식

세션 2

사회 정재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5:40-16:40

발표

“The Arab Spring: Is Conflict really better than Cooperation?”

김후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Democracy in Multinational Societies:
Case Studies in India and Nigeria”

한지민(Janice), 클레어몬트 맥캐나 칼리지

“To Fight or Not to Fight: The Revolution Conundrum”

니야티 간디, 인도 국립법학대학교

*대리발표: 여정민 조지타운대학교

16:40-17:40

토론 및 청중질의응답

김민주 루이스 앤 클라크 칼리지

이서호 플레처스쿨

임희현 듀크대학교

홍성표 서울대학교

17:40

마무리

EPIK Young Leaders Conference 2013 Program

Emcee: Na 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ing Session

13:30-13:40 Opening Address

Heehyun Lim Duke University (Class of 2013)

President of 2013 EPIK Spiders Committee

Sung Hye Kang Oxford University

2012 EPIK Young Leaders Conference 1st Prize Winner

13:40-13:45 Welcoming Address

Sook-Jong Lee President of EAI

Session 1

Moderator: Prof. Jeong-Woo Koo, Sungkyunkwan University

13:45-14:25 Presentation

“Conflict Between Classes in Modern Korea: Foundation for Social Development”

Eun-Young Park, University of Cambridge

“Constrained Cooperation in South Korea's Nuclear Power Policy and Its Side Effect”

Sung Yoon Park, KAIST

14:25-15:25 Discussion

Hyesoo Jee, Yonsei University

Hyunmin Kang, Korea University

Sung Hye Kang, Oxford University

Hye Yeon Park, Johns Hopkins University

15:25-15:40 Coffee Break

Session 2

Moderator: Prof. Jai Kwan Jung, Korea University

- 15:40-16:40 Presentation
- “The Arab Spring: Is Conflict really better than Cooperation?”
Hoo Ri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Democracy in Multinational Societies:
Case Studies in India and Nigeria”
Ji min(Janice) Han, Claremont McKenna College
- “To Fight or Not to Fight: The Revolution Conundrum”*
Niyati Smir Gandhi, National Law School of India University
*substitute presenter: Jung Min Yeo, Georgetown University
- 16:40-17:40 Discussion
- Sung Pyo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 Ju Kim, Lewis and Clark College
Seo Ho Lee, The Fletcher School of Law & Diplomacy
Heehyun Lim, Duke University
- 17:40 Closing Session

Next Generation Town Hall Meeting Program

Emcee: Rasch Tyler Josef (Korea Friends), Jinyoung Ko(EAI Intern)

- 18:00-18:05 Opening Address
Namjin Zeon, Executive Vice-President of Korea Foundation
- 18:05-18:10 Welcoming Address
Sook-Jong Lee, President of EAI
- 18:10-18:20 Awards Ceremony
EPIK Young Leaders Conference Awards Ceremony
Sook-Jong Lee, President of EAI
- Next Generation Conference Awards Ceremony
Namjin Zeon, Executive Vice-President of Korea Foundation
- 18:20-18:50 Music Performance
EAI Senior Interns
EAI Junior Interns
- 18:50-19:10 Dinner & Speeches
Sung Hye Kang, EAI Intern in 2011
Nihat Khalilzade, Korea Friendship Participant
- 19:10- Prize Drawing & Networking Session

참가자 목록

세션 1 한국의 교육과 문화

사회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Alexandrova Iordanka 고려대학교
Xuemei Yang 중앙대학교
Xiaoyue Zhang 경희대학교

토론 박준상 브라운대학교
안중현 펜실베니아대학교
이나영 서울대학교
이윤진 하버드대학교
최은실 서울대학교

세션 2 한국의 정치와 사회

사회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Zhi Chen 경희대학교
Jiajia Liu 서울대학교
Saul Serna 강원대학교
Haixu Wang 한양대학교

토론 박준상 브라운대학교
안중현 펜실베니아대학교
이나영 서울대학교
이윤진 하버드대학교
최수근 고려대학교
최은실 서울대학교

List of Participants

Session I Korean Education and Culture

Moderator Prof. Jae Hyeok Shin, Korea University

Presenters Alexandrova Iordanka, Korea University
Xuemei Yang, Chung-Ang University
Xiaoyue Zhang, Kyung Hee University

Discussants Joong Hyun Ahn, University of Pennsylvania
Eun Sil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Na 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 Jin Lee, Harvard University
Jun Sang Park, Brown University

Session II Korean Politics and Society

Moderator Prof. Jae Hyeok Shin, Korea University

Presenters Zhi Chen, Kyung Hee University
Jiajia Liu, Seoul National University
Saul Sern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ixu Wang, Hanyang University

Discussants Joong Hyun Ahn, University of Pennsylvania
Eun Sil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keun Choi, Korea University
Na 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 Jin Lee, Harvard University
Jun Sang Park, Brown University

Essays

1. “왜 한국은 해외에서 평판이 낮은가? – 행정의 특징과 마케팅 실패”

Alexandrova Iordanka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왜 한국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가?”

Xuemei Yang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 “한국 대학생 휴학현상에 대한 분석”

Xiaoyue Zhang 경희대학교 컨벤션전시경영학과

4. “무소속, 민주진영의 새 멤버?”

Zhi Chen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5. “A Quantitative Research on Korean People’s National Preference – the U.S. or China?”

Jiajia Liu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6. “The Public Role of Protestantism and Its Social Implications for The Gay Community in Korea”

Saul Serna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7. “왜 한국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외국인보다 덜 두려워하는가?”

Haixu Wang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왜 한국은 해외에서 평판이 낮은가?

행정의 특징과 마케팅 실패

Iordanka Alexandrova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물어보았을 때 한국에 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쉽게 대답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이 굉장히 높고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문화유산이 뛰어나고, 활기가 넘치는 현대적인 사회까지 가진 나라다. 재미있고, 매력 있고, 다양하며 무엇보다 살기에 매우 편한 나라다. 객관적인 숫자만 보아도 경제, 정치, 문화 등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리더 국가 중의 하나인 것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은행 자료로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순위는 세계에서 15 위였다.¹ 올 봄에 한국 대표 기업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율 유럽에서 거의 이 분의 일, 미국에서 25%, 세계 1 등이었다.² 이의 뜻은 한국이 고도의 사업과 경제 발전을 이룬 선진국이며 한국의 전자 제품들은 세계적으로 판매율이 높은 주류 (mainstream) 제품들이다. 정치제도 면에서 민주화 지수 보았을 때 한국은 완전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8.13 점으로 세계 20 위에 올라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 국가 중 하나로 인정을 받는다.³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국가경쟁력 종합 평가 (World Competitiveness) 2013 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22 위에 있다.

¹ The World Bank (2012).

² Goldhill Olivia, "Almost Half of Smartphones Sold in Europe Are Samsung," *Daily Telegraph*, 01 Jul 2013, Brian X. Chen and Nick Wingfield, "Samsung on Apple's Turf," *New York Times*, 15 Mar 2013.

³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2."

이에 반해 한국은 해외에서 평판이 낮다고 판단된다. 특히 서양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오해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 정부가 한국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어마어마한 세수를 쏟아 붓고 있지만 글로벌 컨설턴트인 *Reputation Institute* 평판지수에 따르면 2013 년에 한국이 50 개국 중에 34 위에 위치되어있다. 한국은 평균 54.6 점보다 낮은 47.2 점으로 일본, 태국, 인도, 대만보다 낮은 등급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 중국에만 앞서는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평판 수준이 “약함”으로 평가받아 지난 2012 년보다도 3 위나 내려갔다.⁴ 세계 15 번째 경제, 안전한 민주국가인 한국의 세계적 평판이 불균형하게 약한 것이 흥미로운 현상이다.

평판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Reputation Institute*의 평판지수는 경제 발전도, 정부 실효성, 환경 매력도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G8 국가 소비자 대상으로 실행되는 대규모 설문조사며 소비자들이 어떠한 국가를 얼마 정도 믿고, 존경하고, 경의 하는지,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하여 얼마 정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지 판단하는 것이다.⁵ 다르게 보면, 선진국들의 수요동향을 측정하는 연구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판지수의 5 포인트 증가는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 12% 증가의 결과가 있으며, 그 외에 직접투자 및 수출률, 외교관계까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⁶ 또한, 평판이 높은 국가의 시민들은 해외에서 환영받으며 사업 또는 유학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국가적으로는 해외 전문가들을 유치하여 국내에 외부적 요소를 투입하여 학문적, 기술적 혁신을 위한 촉진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국가의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국제기구 가입이나 국가 간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⁷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국제 평판이 과연 노력한다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평판지수는 인식, 즉,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와 비교하면 인식과 현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인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 경쟁력 지수는 통계와 전문가의 평가 포함하는 300 개 객관적인 요소 기준으로 국가들의 경쟁력을 판단한다. 그림 1 에 나타나듯이 경쟁 지수와 평판 지수는 대부분 경우에 연결되어 있다.⁸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객관적 경쟁력을 보았을 때 예측되는 평판 수준을 이루지 못하여 향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 정치, 환경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인식을 바꾸면 한국은 현재 위치한 34 위에서 한국과 비슷한 경쟁력 가진 13 위의 일본이나 16 위의 프랑스 같은 국가 간의 평판 격차를

⁴ Reputation Institute (2013). 다른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상황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Gallup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에 60%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 (80%)이나 인도 (69%)보다 낮은 비율이다 (Lydia Saad, "American's Most and Least Favored Nations," (Gallup, 2008))

⁵ *Reputation Institute* 는 국가별 각 요소의 값을 일반적으로 밝히지 않다. 값이 밝혀진 국가들을 보았을 때 한 국가의 모든 요소값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따라서 대체로 어떠한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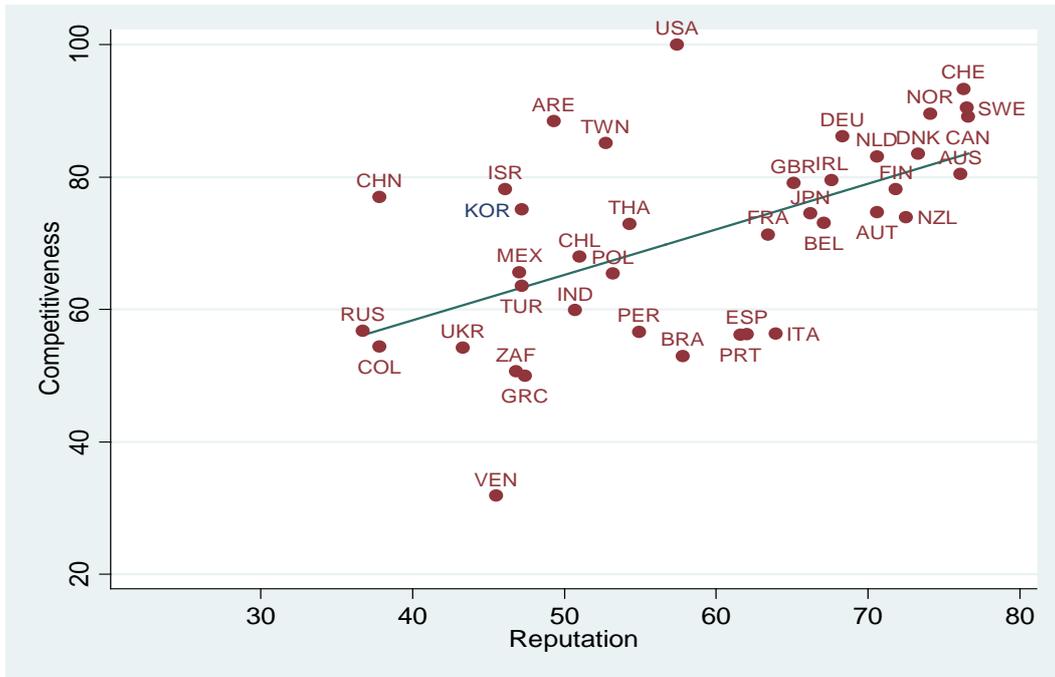
⁶ 2012 Country RepTrak™ Topline Report (Reputation Institute, 2012), p. 8

⁷ Reputation Institute. 구체적인 예로 이미지와 외교관계에 연결성에 관하여 J.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2004), 수출률에 관하여 C. Min Han, "Testing the Role of Country Image in Consumer Choice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4, no. 6 (1990) 참조.

⁸ 두 연구가 포함 시키는 국가들이 완벽하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사례 수가 39 명 이 사례 기준으로 상관 분석 결과는 두 지수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r=0.56$, 미국을 빼면 $r=0.6$). 단순 선형 분석 결과는 경쟁 지수와 평판 지수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유의확률 0.05). 통계분석 결과를 요청 시 제공.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평판 지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는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알려지는 국가 마케팅이다.⁹ 한국정부는 마케팅 캠페인에 크게 투자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¹⁰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케팅 캠페인들의 성공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경쟁력과 평판



출처: Reputation Institute 그래프 개조,
Reputation Institute 201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세 가지 마케팅 캠페인

한국정부기관들이 실행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 중에 분명하게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캠페인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캠페인의 정확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⁹ 예를 들어 최근에 싱가포르가 마케팅으로 통해 관광객 수 증가와 더불어 국가 평판지수를 5년 만에 6.6점으로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2009년에 싱가포르의 평판지수 51.7이었으며 2013년에 58.3으로 올랐다. 이 결과는 정부 주도로 시작된 “Best Tourism Branding” 상을 받은 “Uniquely Singapore” 캠페인의 성공 표시로 볼 수 있다. 참조: Joan C. Henderson, “Uniquely Singapore? A Case Study in Destination Branding,”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3, no. 3 (2007), “Singapore Tourism Board Recognized for ‘Best Tourism Branding’ and ‘Best Medical Branding,’” *Middle East Company News*, 2007 Jun 28 2007.. 평판지수를 5년 만에 5-6점으로 올려낸 국가들은 싱가포르 외에 덴마크 (5.8), 독일 (6.9), 벨기에 (4.8), 태국 (5.7) 모두 국가 주도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Sung-Un Yang et al., “Country Reputation in Multidimensions: Predictors, Effects, and Communication Channel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0, no. 4 (2008), Peter van Ham, “The Rise of the Brand State: The Postmodern Politics of Image and Reputation,” *Foreign Affairs* 80, no. 5 (2001). 참조.

¹⁰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위원장 인터뷰, Jeong-ju Na, “Nation Branding Key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orea Times* 2009-01-21.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 아닌바 전문가나 소구대상들의 의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성공”의 기준은 본 캠페인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판단이다.

“**Korea, Sparkling**” 한국관광공사가 “Dynamic Korea” sub-brand 로 2 년 준비 노력 끝에 2007 년 4 월에 시작한 관광 홍보 캠페인이었다. 목표는 외국 관광객을 매년 천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 캠페인 포함한 2007 년에 한국 관광 지출은 US \$ 170 억이었다.

영국인 사이먼 안홀트 정책전문가의 기여도 불구하고 영국 캠페인 출시 이벤트부터 좋은 평가 받지 못하였다.¹¹ 캠페인의 이름 자체가 원어민들 입장에서 음료수나 떠오르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캠페인을 소개하는 광고지 역시 마찬가지였다.¹² 캠페인이 중단될 때까지 관광객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¹³ 전체적으로 캠페인이 성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식세계화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로 2009 년에 시작한 캠페인이다. 구체적 목표는 한식을 세계 주류 Cuisine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광고, 한식당 지원 등을 통하여 이 목표를 이루어질 예정이고 2012 년에만 이백억 원 넘게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캠페인의 전체적은 평가가 좋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로는 한식세계화사업 성과 “미흡”이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려면 “총체적인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하다.¹⁴ 캠페인 효과가 보이지 않아 주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까지 하였다.¹⁵ 인터넷 커뮤니티도 캠페인의 광고물들 등 한식 자체를 소개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지나치게 의전하고 설득력이 없었다고 하였다.¹⁶

“**국가 브랜딩**” 프로젝트는 2009 년 시작되어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설립되어 칠천만 달러가 준비되었다. 10 포인트 action plan과 더불어 4 년 안에 Anholt’s Nation Brand Index에 한국 위치를 33 위에서 15 위로 올리는 야심적 목적까지 제시하였다.¹⁷

¹¹ Philip Gowman, "Korea, Fizzling," in *londonkoreanlinks.net* (2007).

¹² Philip Gowman, ""Korea, Sparkling" Explained" in *londonkoreanlinks.net* (2007), "Korea Sparkling" in *The Wanderer* (2007), ""Korea, Sparkling!" in *The Metropolitan* (2007), James Murphy, "Korea Push Draws Critics," *Media*, 20 Apr 2007.

¹³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co.kr

¹⁴ 조윤희,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3).

¹⁵ Bae Ji-sook, "Hansik Globalization Project 'Utter Failure'," *The Korea Herald* (2013).

¹⁶ Steve Miller, "Why Korea Sucks at Marketing Itself," in *The QiRanger*, www.qiranger.com (2013). 국내 외국인 사회에 인기 있는 이 블로거는 드라마 대장금의 주역 맡았던 배우 이영애의 참여한 비빔밥 광고를 예로 든다. New York Times 에 나온 이 광고가 비빔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New York Times 의 독자들에게 아무 연상도 일으키지 않는 이미지에 집중한다. 비슷한 예는 New York Times Square 에 설치된 “무한도전” 비빔밥 광고다.

¹⁷ 이 목표는 이주일 만에 수정되어 한국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명문 국제 지수 NBI 말고 삼성경제연구소 (SERI)가 만들 새로운 8 개 부문별로 국가브랜드지수(NBDO)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Andreas Markessinis, "Brand Korea's 10-Point Action Plan Unveiled," in

이 프로젝트는 한국 문화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전통사찰 홍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운동, 문화 알리기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지만 성공이 부분적이다. 현재까지 한국 브랜드 로고나 catch phrase 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캠페인의 계획에 들어 있는 다른 목표들도 달성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은 좋아지지 않았다.

기존 문헌

수많은 한국 또는 외국 기자와 블로거들이 한국의 국제 평판이 낮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화재로 삼는다. 한국이 진행하는 홍보 캠페인들이 하나하나씩 실패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한국 정부가 외국인 대상으로 마케팅 할 줄 모른다," "캠페인이 건방져서 역효과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등이 있다.¹⁸ 또는 자주 언급하는 현상은 한국 정부의 행동이나 발언 같은 고립된 사건이 한국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눈에 쉽게 보이는 결과만 논의하는 것이며 한 발 나가서 근본적인 마케팅 캠페인 실패 원인을 찾지 않는다. 올바른 질문들은 "왜 한국 정부기관들이 외국에서 성공할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지 못하는가?", 또는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건들은 왜 발생하는가?"이다.

마케팅 실패의 주요 요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마케팅 캠페인들의 주된 실패 요인은 특별한 행정부 문화이다. 수많은 전문가의 노력과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일으킨 것은 세 가지 행정의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민족주의다. 문화적 다양성을 몰이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마케팅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적어진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전 세계를 한국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인기 있는 상품 해외에서도 인기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외에,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심으로 캠페인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고 마케팅 효과보다 국내 여론에 호소하는 캠페인도 적지 않다. 정책결정자들은 외국인 전문가들을 채용하여도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국에서 성공한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외국에서 사용한다.¹⁹

민족주의의 다른 모순적인 면도 있다. 한국은 근대 시대로 먼저 들어간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월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modern, high-tech 제품으로 경쟁하며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해외에서도 매력

Nation Branding (2009), Andreas Markessinis, "Korea Won't Evaluate Success against the Nation Brands Index," in *Nation Branding* (2009). 참조.

¹⁸ 수많은 예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Miller, "Why Korea Sucks at Marketing Itself", Bobby McGill, "The Image Thing: Korea and World Perception " *Busan Haps*, 2011-10-03., "Korea's Reputation," *Korea Times* 30 Sep 2011, *Brandingkorea.org*, "Korea, Sparkling": End of an Era? (2010), McGill, "The Image Thing: Korea and World Perception ", 등

¹⁹ McGill, "The Image Thing: Korea and World Perception ".

있어 보이는 전통문화를 자랑하지 않다. 또는,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마케팅 할 때 상품의 차별성이 아닌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비효과적인 전략을 택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다.

둘째, 외부적 지향이다. 한국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대상 캠페인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또는 관광하는 외국인들의 인상들이 한국 이미지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겪으면 자기의 불쾌함을 세계로 전달하는 것이 마련이다. 국내 언론에서 다른 나라들을 공연히 비난하거나 어떠한 그룹의 외국인 거주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발언도 역시 국제 평판에 좋지 않다. 아무리 이미지를 고치려고 하여도 이 이미지를 만든 문제점들을 다루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브랜딩 코리아 프로젝트 출발부터 이 문제를 인정하고 10-point plan에 외국인 대응에 관한 포인트와 한국인들의 민족주의 문제 다루는 노력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²⁰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대책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평판을 높이는 것은 한국 내에서 시작해야 하나 내부로 향하는 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²¹

셋째, 독특한 근로 가치관이다. 유교 문화와 근대화의 만남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행정부 내 근로 관계를 형성하였다. 행정부 내에서 유교적 계층 제도 유지되어 있으며 체제 순응주의가 규범이기 때문에 상사의 결정을 도전하는 일이 흔하지 않으며 혁신적 생각을 하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²² 반면, 현대 사회의 심각한 경쟁 규범으로 인하여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후임이나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의 무능으로 보일 수 있어 행정인 입장에서 위험한 행위다. 경쟁으로 인하여 행정부 간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 현 행정부가 전 행정부의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정책 지속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금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성공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생기고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매우 늦기 전에는 발견되지 않아 수정할 수 있었던 캠페인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마케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하여, 즉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필요한 혁신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결론

국가 평판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국가들은 운이 좋아 애초부터 높은 평판을 즐기고 있다. 나머지는 노력으로 통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독특하면서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것을 찾고 일관성 있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²⁰ Markessinis, "Brand Korea's 10-Point Action Plan Unveiled."

²¹ Kwon Oh-yul, "Koreans Need to Improve Their Global Image," *The Chosun Ilbo* Nov 17 2009.

²² 최근의 연구를 따르면 한국인 61% 이상 업무현장에서 갈등을 무조건 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가 더욱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Chong-Min Park and Doh Chull Shin, "Do Asian Values Deter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6, no. 3 (2006): 347.

왜 한국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가

Yang, Xuemei, Chung-ang University

I. 서언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되면서 많은 것들이 효율성과 교환 가능성의 잣대로 재어지는 시대로 변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본다면 문학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것이 당연하고 또 걸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문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주는 수단으로 남아있으며 영화, 드라마, 게임, 연극, 뮤지컬 등의 다양한 표현 수단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개인적으로 한국 문학을 중국에 소개하는 학자와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왜 한국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경제, 스포츠, 음악과 미술 같은 다른 예술분야, 그리고 '한류' 로 표현되어 해외에 소개되는 대중문화가 모두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가 고르게 발달해야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 시키고 있다. 한국이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사실은 당연히 이상한 것이다. 노벨문학상이 어느 정도 유럽어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아시아권에서 일본, 중국, 인도, 이스라엘, 터키에서 이미 수상자를 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

II.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원인 분석

한국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변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의 한국 문학 연구자를 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해외의 독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작품 소개에 앞서서 또는 이와 병행하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작업이다.

일본은 이미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에 겐자부로 두 사람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물론 일본이 가지는 경제적인 지위와 세계적인 인지도가 한국에 비해서 앞서지만 노벨상 수상 년도가 각각 1968년과 1994년 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랄만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한국과 인접해 있는 같은 아시아 국가이다. 이 점에서는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하는 서양인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변방일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언어도 계통적으로 같은데 이도 같은 조건인 것이다. 유럽어끼리 서로 번역하는 것은 한국어나 일본어를 유럽어로 번역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쉽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 상호간의 교류 역사가 오래되고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은데다 언어도 유사하여 번역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이 적고 좋은 번역자를 확보하는 것도 쉽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낸 것은 한국에게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

서 말한 문학 작품을 외국에 소개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의 문체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본다.

1. 문학 작품 애호가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문화 전파

노벨문학상은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상이며 국가나 단체가 아닌, 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상이라는 점은 너무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몇몇 예외는 있겠지만 노벨문학상은 한 국가의 총체적인 문화 역량을 배경으로 하여 획득하는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호감도도 올라가서 결국 그 나라의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노벨문학상은 한 국가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이 자신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한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 그 결과 서양에서는 자포니즘(japonism)이라는 용어까지 나타나는데, 이는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까지 서양 미술 전반에 나타난 일본 미술의 영향과 일본적인 취향 및 일본풍을 즐기고 선호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서구인들이 일본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860년대부터이다. 일본이 1854년 구미(歐美)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유럽에는 일본 미술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62년 런던 만국박람회와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통해 일본의 도자기와 차(茶), 부채, 우키요에 판화 등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일본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들은 일본 미술품의 장식적인 요소를 차용하는 수준에서 점차 그 양식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하는 양태로까지 나아갔다.

그 이외에도 일본 문화로서 세계에 알려진 것은 오리가미(종이접기)와 하이쿠(俳句)¹가 있는데 특히 하이쿠는 문학 형식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학 애호가 층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이쿠는 17글자를 5-7-5의 음수율로 구성된 짧은 정형시인데 반드시 계절에 관한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현재 일본에는 하이쿠를 쓰는 작가가 백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 두터운 애호층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확산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좋아할 수 있겠는가? 세계적으로는 약 50개 국가에서 천만명이 넘는 하이쿠 애호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하이쿠를 짓는다.

하이쿠는 짧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기에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속도가 하나의 가치가 된 현대 사회에 잘 맞는 문학 양식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도 하이쿠에 못지 않는 문학 형식으로 시조가 있다. 시조는 지나치게 짧아 상투적인 표현이 되기 쉬운 하이쿠와 비교하면 적당히 짧으면서도 깊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길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문학 양식이라 생각한다.

¹두산백과, 일본 고유의 단시형(短詩形).을 말하는데 5·7·5의 17음(音)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원래 일본에는 중세 무렵부터 조랭카[長連歌]라는 장시(長詩)가 있었는데, 15세기 말부터 이 조랭카는 정통(正統) 랭카[連歌]와 서민생활을 주제로 비속골계화(卑俗滑稽化)한 하이카이랭카[俳諧連歌]로 갈리었고, 에도시대에 이르러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같은 명인이 나와 하이카이랭카는 크게 유행하였다. 이 하이카이랭카의 형식이 제1구(句)는 훗쿠[發句]라 하여 5·7·5의 17음으로 이루어지고, 제2구는 7·7의 14음, 제3구는 다시 5·7·5의 17음 등, 장·단이 교대로 엮여져 많은 것은 10구, 짧은 것은 3구 등이 있다.

한국은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자국 문화 알리기 노력과 이로 인해 얻은 결실에 비한다면 이제 막 출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 문화 알리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두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 해야 한다.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은 민간 차원의 상업적 노력의 결과 이지만, 아주 성공적인 한국 문화 알리기 사례라고 생각한다.

2. 학자를 통한 문학 작품 소개

한국 문화,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외국 학자들은 자국에서 강의와 연구 그리고 저술 활동을통해 한국 문화,문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교두보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 넓게는 ‘한국학’ 좁게는 ‘한국문학과’ 를 개설하고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해외의 한국학 과정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2 개국 69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교수 100명이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의 한국학 위상은 여전히 불안한데, 이는 한국학 프로그램과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서 새로운 연구자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학자가 퇴직하면 이를 보충할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지난 60년대부터 해외의 일본학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수 많은 일본학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본 문화의 세계화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었다.

3. 해외 독자에 대한 직접 소개

문학은 미술이나 음악처럼 직접적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 독자를 위해서 반드시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번역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비교가 되지 못해 개괄적인 비교가 되고 말아 미흡하다.

(1) 번역 지원 기구

한국은 오랫동안 번역을 통한 한국 문학 알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한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문학서의 번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한국 문학번역금고를 만든 시기가 1996년 인데 이는 한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면 상당히 늦은 출발이었다. 이 한국 문학번역금고를 확대하여 2001년에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일본은 근세 초기 메이지 시대부터 번역에 관심을 갖고 거의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 했고 , 이를 토대로 일본 문화와 문학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끼친 영향도 크다고 한다.

(2) 번역 성과

일본 작가 카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상을 받기 전에 이미 20년이상 꾸준히 그의 작품이 130종 이상의 외국서적으로 출판 되었고 오에 겐자부로도 30년 이상 동안 150종 이상의 출판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는 작가들의 해외 출판 종류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데, 시인 고은의 작품이 16개 언어 51종, 소설가 이문열 50종, 이청준 36종, 황석영 35종이다

개별 작가의 작품 소개뿐만 아니라 전체 수에서도 일본의 10%에 불과하다.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 문화재단 및 기타 개별기관 번역지원 현황을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2009년 까지 총 26개국 1814종 이라고 한다. 이중에서 영어 495종 중국어 228종 일본어 352종을 빼고 나면 기타 외국어 번역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어 번역이 영어 번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이다.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대상작품은 유럽어로 씌어지거나 번역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그렇다면 영어 이외에도 다른 유럽어로도 번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요구하는 언어 기준에 맞고 둘째, 전통적인 문학 강국으로 여전히 많은 문학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 들에게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문학의 독자층이 전 세계적을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노벨 문학상은 어쩌면 한 작가의 역량이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 더 큰 것이다. 다행히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되고 나서 2013년 현재까지는 유럽어 번역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한국문학번역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9개 언어로 872권의 번역이 이루어 졌는데, 영어 205권, 프랑스어 82권, 독일어 90권, 스페인어 67권, 러시아어 53권 중국어 145권, 일본어 53권등이다.²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어 이외의 서양어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45년부터 국가가 나서서 문학작품의 번역을 지원해 지금까지 2만종에 가까운 작품이 해외에 소개 되었다고 한다.

(3). 번역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고도의 지적인 작업이며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전환 시킨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번역가는 새로운 독자층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원작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서 번역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것은 물론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단순히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자료도 포함하는 것이다. 번역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고 번역가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개선 되어야만 유능한 번역가가 많이 나올 수 있다. 한국에서는 번역가에 대한 처우가 높지 않아 전문 번역가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은 일찍부터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일본어로 된 콘텐츠가 영어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중에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자료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한다. 20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는 학사 학위만을 가진 평범한 회사원으로 영어를 거의 못했고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스카와 도시히테는 유학은 물론 평생 해외 출국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국제학회 초청도 거절하고, 노벨상 수상시에는 관례에 따라 어눌한 영어로 연설을 했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자료가 일본어로 번

² www.klti.or.kr

역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II. 결론 - 앞으로의 방향

지금까지 한국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 원인을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찾아보았다. 물론 일본의 사례가 절대적인 기준이나 모범 사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같은 동양국가이고 언어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 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노벨문학상이 서양에 편중되었던 그 동안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작년의 중국 작가의 모옌(莫言)의 노벨상 수상은 한국의 노벨 문학상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청신호로 받아 들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인터넷 도서 판매 회사인 아마존에서 상위 순위에 든 사실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 했다고 본다. 첫째는 한국 문학작품이 외국에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훌륭한 번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신경숙의 작품이 것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김지영이라는 뛰어난 번역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그가 번역한 영역본은 처음부터 영어로 쓴 작품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칭찬까지 받았다고 한다.

문학이 한 나라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문학은 서언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예술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선진국,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문학을 즐기고 중시하는 생활방식과 자신들이 축적한 문학적 역량에 자신이 있는 만큼 고급 문화로서의 문학적 역량으로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은 아직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국제적인 인지도가 낮고 문화적으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작가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아니 설사 노벨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은 한국문학과 한국문화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높일 것이고 이것이 경제적인 면에 미치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문학이나 문화가 가지는 이러한 순기능을 잘 이해하여 장기적인 투자의 방법으로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 대학생 휴학현상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Temporary Leaves

-Xiaoyue Zhang (장소월)

1. 문제제기

왜 한국에서 휴학이 대학 문화가 되고 있을까?

한국에서 2001년 들어 처음 90만 명을 넘어선 휴학생 수는 작년까지 12년째 단 한 번도 9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매년 한 차례 집계해 발표하는 2010년 한국 4년제 대학의 휴학생은 전체 재적생의 31.4%에 해당하는 6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휴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휴학생 수(4월 1일 기준)는 93만2703명에 달한다. 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전체 대학 재적생 수가 298만8168명인 점을 감안하면 휴학률이 31.2%에 달한다. 학생 10명 중 3명은 휴학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뉴스에 의하면 한국 휴학생 100만 명의 시대에는 휴학은 취업에 필수가 되고 5명의 휴학생 중 4명이 대학 졸업장보다 토익 성적 등 스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새인가 한국에서 휴학은 대학 문화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 휴학 현상은 대학생 개개인뿐만 아니라 대학자체 및 사회·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의 개인차원에서는 휴학에 따라 시간 낭비, 금전적인 손실, 경력개발의 혼란, 심리적인 위축될 수 있으며 특히 졸업 이후 직업획득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보상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 (김용남, 2009). 또한 학교차원에서는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한국 대학의 재정재정구 볼 때 30%가 넘는 대학생 휴학률은 대학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병식, 2003). 뿐만 아니라 휴학으로 인해 젊은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추어 진다.

따라서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생 휴학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원하는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휴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대학생과 달리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그저 학생의 신분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들이 주로 방학 때 인턴을 한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매년 한 100만 명에 가까운 많은 학생이 휴학을 할까? 왜 똑같이 경제위기로 취업이 어려워지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단체 휴학이 한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관념이 되고 한 문화가 형성되었을까? 과연 휴학해서 필요한 스펙만 쌓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짜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2. 주장과 근거

위 질문에 대하여 물론 한국에서 남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입대하기 때문에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다. 또는 등록금 인상 문제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커서 휴학을 택하는 학생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요즘의 한국대학생들이 취업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을 따거나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거나 어학 연수 등 스펙을 쌓고 싶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또한 휴학을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 휴학문화가 생겨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휴학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스펙만 잘 쌓으면 양질의 일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휴학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아주경제 뉴스에 따르면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올해 휴학(군 휴학 제외)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32.1%가 ‘있다’라고 답했다.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 이상’이 50%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은 22.2%, ‘2학년’은 19.4%였다. 1학년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고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60%)를 휴학을 많이 하게 되었고, 2학년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50%)를, 3학년 이상은 취업 때문에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46%)를 각각 첫 번째로 꼽아 차이가 있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이후의 인생 도로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학 입학 전까지는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자신의 학업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평가와 상담을 받고 있는 반면에 대학 입학 이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도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인생 방향을 잡거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휴학하고 또는 휴학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새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점은 가능한 한 고 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어학 성적 또한 가능한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 사회봉사 등 소위 스펙 쌓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군 휴학자를 포함하여 휴학생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휴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일본 디자인 편집 팀이 모바일 설문 조사업체 오픈서베이에서 전국의 1000 명 휴학생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516명(33.7%)이 각종 시험 준비(고시, 외국어

시험 등), 233명(15.2%)이 휴식, 229명(15%)이 인턴 등 사회 경험, 98명(6.4) 어학 연수로 휴학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취업난이 가중되고, 대학 졸업자가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및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휴학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저널, 2010, 경향신문, 2009). 그래서 취업이 어렵다는 사회에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것은 최선의 선택인 것 같고 만약 합격하면 안정된 노후도 보장될 것만 같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어 보여서 남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남이 자격증이나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그런 스펙을 쌓아야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휴학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고용구조의 고도화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더디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 신입채용여건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환경을 보면, 첫째 신입사원 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인재 채용전략을 '선검정 후 채용'의 형태로 바꾸어 인턴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은 더욱 어려운 여건에 있다 (최일수, 2012). 그리고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졸업을 연기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데다 기업에서 졸업예정자를 더 선호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경제저널, 경북신문, 2013).

2005년도 이후부터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평가 기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중요시하는 평가항목은 경력사항, 전공 및 학점, 자격증 및 외국어성적 등 인지적 역량(36.5%)보다 적극성 및 성취욕, 조직적응력 및 대인 관계, 지원동기 및 애사심, 가치관 및 기타 등비인지적 역량(63.5%)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중요하다고 관심 갖는 인지적 역량에 속하는 전공 및 학점은 15.3%, 자격증 및 외국어성적은 5.7%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 2011.06.06; 최일수, 재인용).

또한 지금 스펙이 성공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있다. "어학 성적과 학업성적'은 기준 점수 (토익 성적 700점 이상, 졸업학점 3.00이상) 이상을 취득하고, 저학년 때부터 자신만의 취업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취업성과 달성의 중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 해외연수, 졸업연기 등 과도한 기회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일수, 2012).

위에 언급한 조사 내용을 보면 지금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밝혀도 많은 대학생들이 여전히 스펙이 쌓아야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람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습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을 위해 사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사회배경에서 대학생들은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갖는 가능성은 얼마만큼의 질로 사교육을

받았는지와 관련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스펙이 있는 기준으로 기업들이 사람을 뽑았던 과거사회적 배경이 있어서 높은 영어 성적 또한 비싼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다른 학생과 점수를 두고서는 공정하게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고 누구보다 더 나은 스펙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학생들이 스펙이라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불안한 사회적 흐름에 생존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학교, 기업 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휴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군입대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휴학해야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이 휴학하고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거나 부족했던 전공 공부나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늘리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인턴 등을 통해서 돈도 모으고 많은 사회 경험을 쌓아서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문제는 굳이 휴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휴학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휴학을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으로 인해 스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휴학을 선택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명확한 목표가 없을 경우 시간낭비로 이어지기 쉽고 사전에 왜 휴학을 하는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단순 두려움으로 휴학해서 졸업을 미루고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헤럴드경제 일보의 뉴스에 의하면 정부는 학교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이동에 방점을 맞춰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하고 취업 이전 단계의 대학 재학생들을 실전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 지원 등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스펙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다리기보다는 노동시장에 서둘러 진입해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회경제적 배경, 대학에서의 학습 관련요인, 취업대란 등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여러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요인으로 휴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휴학 요인을 보면 크게 어학연수, 자격증 등 스펙 쌓기, 인턴 경험,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쟁의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진로 및 향후 직업을 위해서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생들이 이런 요인으로 휴학하는 것은 대부분 취업

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요새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의 채용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학점, 토익 점수 등 기존의 전형요소보다 구직자가 가진 열정, 도전정신, 전문성, 창의성 등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취직하기 전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펙 쌓기보다 자신만의 장점과 열정을 스토리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대학생의 인식 전환하고 불필요한 휴학을 막으려면 한국의 사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이런 사회 현황을 바꿔야 하며, 휴학생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학교, 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돕기 위해서 어학관련 교양 수업의 질을 높이거나, 학교와 기업이 연계를 통해 인턴십 교과목 및 자격증 준비 관련 프로그램 개선을 확대하거나 하계, 동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학업과 진로에 관련하는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휴학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으면서 한국에서 이런 휴학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대학생 단체 휴학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성식 (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교육> Vol. 35, No. 1, pp. 227~249
- 곽윤영 (2011) "여자 대학생의 학업중단 유형 분류 및 관련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Vol. 30, No. 2, pp. 231~248
- 박성재 ·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Vol.29 ,No.3 pp. 29~50
- 이병식 (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특성의 타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Vol. 41, No. 2, pp. 135~154
- 이영민 · 임정연 (2011)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 · HRD연구> Vol.4, No.4, pp. 91~120
- 주휘정 · 차성현 (2011)"대학생의 휴학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Vol. 29, No. 1, pp. 227~293
- 채재은 (2011) "대학생들의 휴학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Vol. 29, No. 1,
pp. 293~317
- 최일수 (2012)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 홍신기 · 권동택 (2011) "사교육 관련 주요 문제 국제 비교" <초등교과교육연구>
Vol.14호

조선일보: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8/2012120800401.html

조선일보 중국어판:

http://cn.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01/20090901000030.html

CRI online:

<http://gb.cri.cn/27824/2012/12/31/6011s3976770.htm>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210000490&md=20121213004743_AS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220000439>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10036&news_area=050&news_divide=05009&news_local=10&effect=4

경제풍월:

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95121&mid=market_2010

MK뉴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55906>

무소속, 민주진영의 새 멤버?

Zhi, Chen/ Kyung Hee University

1. 서론

우리가 늘 무시하던 질문들 있다. 왜 무소속 박원순가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야당단일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겼을까?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지만 곧 민주당에 입당했을까? 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 후보단일화 이슈가 터졌을까? 모든 질문을 종합적으로 볼 때 “왜 무소속 정치인들 민주진영과 손 잡았을까”라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민주진영의 리더인 민주당은 야당인 만큼 기성세력의 대표이다. 새 정치를 대표한다고 나선 무소속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미지에서 민주당과 다르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비슷한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예를 찾아보면 대만이 생각난다. 새누리당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국민당 (中國國民黨, KMT), 민주당 역할을 맡고 있는 민주진보당 (民主進步黨, DPP), 그리고 2006~2008년 사이에 주요 제3세력인 Million Voices Against Corruption. Million Voices Against Corruption (百萬人民倒扁大遊行) 이 당시에 정당이 아니었지만 운동이 퇴조하면서 핵심 운동가들이 홍당 (紅黨, Home Party)을 창당하여서 본격적으로 정당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이 운동이 당시 민주진보당 당수이자 대통령인 Chen Shui-bian을 반대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중국국민당과 손을 잡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대만 민주화 이래 제3세력 핵심인 친민당과 신당은 중국국민당과 Blue Camp를 만들고, 또한 무소속 의원들도 Blue Camp와 정치이념에서 가깝다. 본 문에서 대만과 한국의 정당정치를 비교하면서 위에 제시한 질문을 대답하고 무소속과 민주당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양당정치(兩黨政治) vs. 다당정치 (多黨政治)

먼저 정당정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1 정의

현대 민국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당정치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양당정치와 다당정치.

대만과 같이 크게 두 개 진영으로 나누어서 정당정치하는 경우는 양당정치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독일을 비롯해 서구 국가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경쟁하는 경우 다당정치이다.

양당정치나 다당정치나 선거제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선거제도에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다수대표제를 실행하는 선거구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로써 선거를 이기려고 정치주장이나 이념이 같거나 비슷한 정당들 간의 협력이 형성되자 결국 양당정치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힘이 약한 정당들이 항상 강한 정당의 부속이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실행하는 선거구에서는 정원이 정해져 있고 정당들 얻는 표를 비례로 하여 자리를 나눈다. 이런 제도가 힘이 약한 정당에게 당선되는 기회를 주고 다당정치구조가 형성할 수 있게 만든다.

2.2 대만의 정당정치 구조

대만에서 국회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입법원(立法院)이다. 입법원의 구성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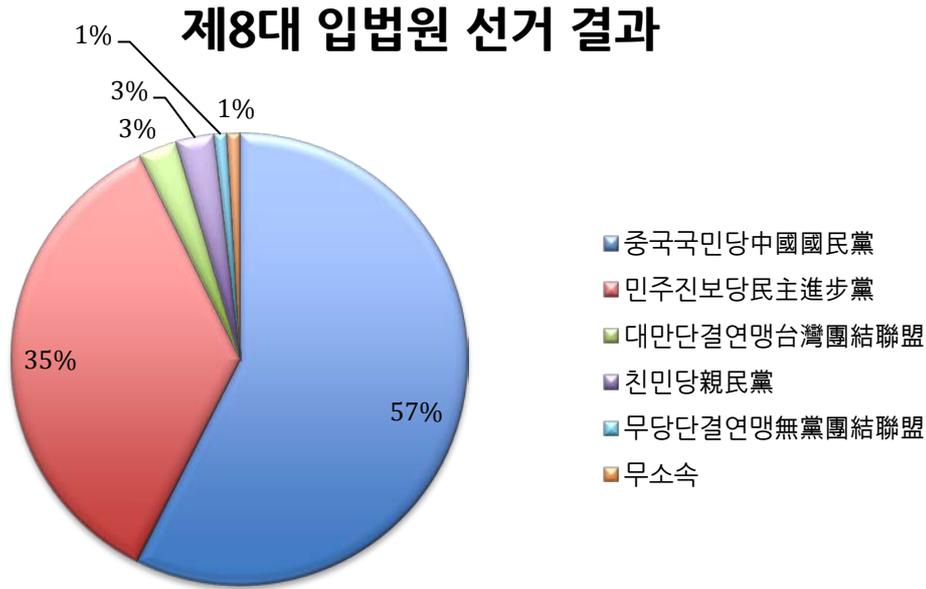
입법위원(立法委員)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다. 2008년 제 7대 입법위원 선거부터

제도개혁을 실행하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원주민선거구는 제외) 반으로 줄여 113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선거구별 입법위원	73	73 개 선거구, 다수대표제
원주민(原住民) 입법위원	6	“平地原住民”과 “山地原住民”으로 나뉘서 단기이양투표제를 실행하고 선거구별 3명
비례대표	34	선거구별 입법위원 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게 나눈다. 단, 득표율 5%이상이어야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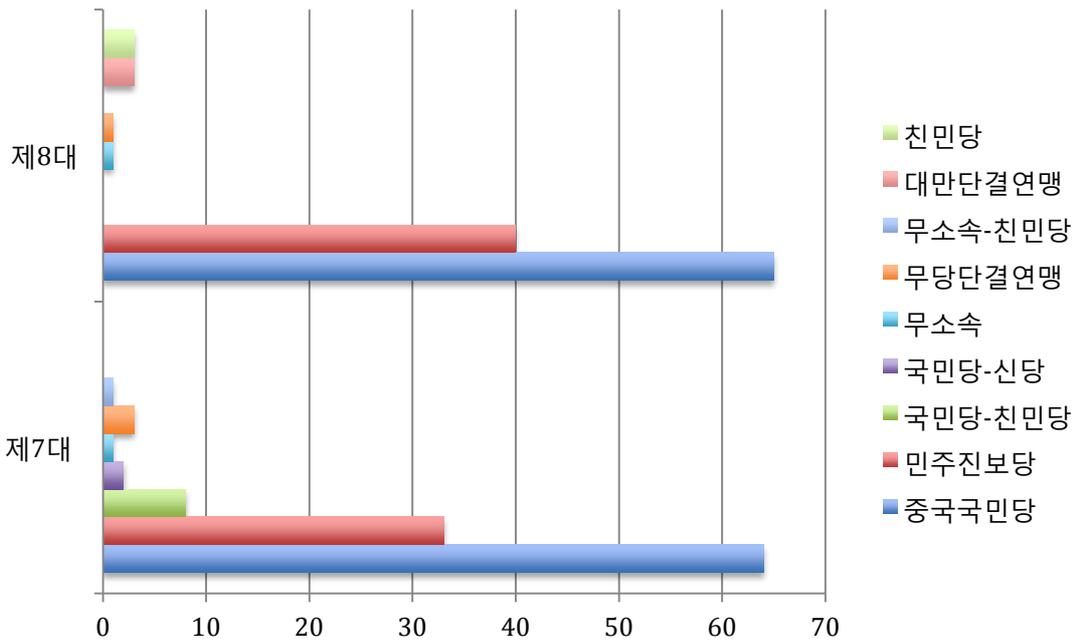
	정당별 당선자 중에서 1/2 의 여성대표 있어야 된다.
--	--------------------------------

그외에 3 석이상 차지하는 정당은 당단(黨團)을 조직할 수 있고 입법원에서 당단은 최대한 5 개로 한정되어 넘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표 1> 대만 제 8 대 입법원 선거 결과¹

¹ 대만 입법원 통계자료 <http://www.ly.gov.tw/>



<표 2> 제 7 대, 제 8 대 입법위원 구성²

<표1>과 <표2>를 종합적으로 보면 대만은 전형적인 양당정치라고 할 수 있다.

2.3 한국의 정당정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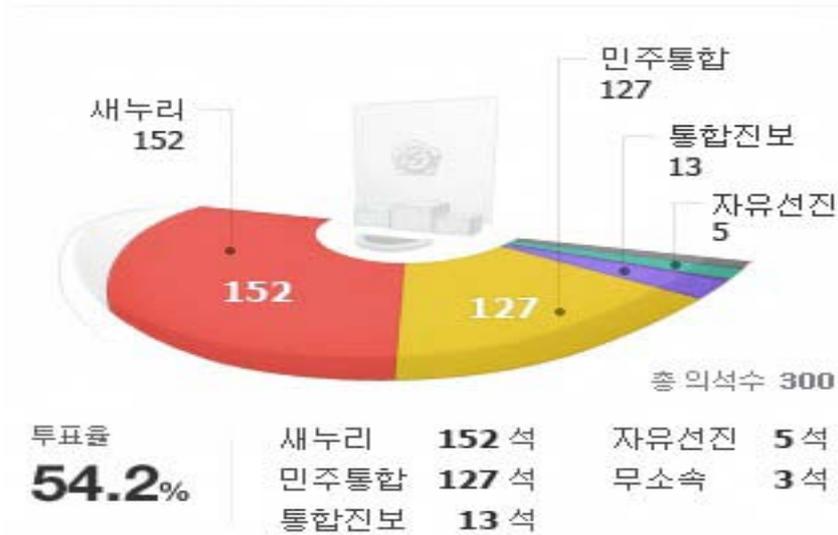
한국은 역시 대만과 같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국회 총 300석 중에서 54명은 비례대표자리고 나머지는 다수대표자리이다.

² 대만 입법원 통계자료 <http://www.ly.gov.tw/>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임기4년 2012.05.30 ~ 2016.05.29

선거일 2012년 4월 11일



<그림 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³

비례대표수가 아주 적은 편이뿐만 아니라 <그림 1>과 같이 국회 의원 구조를 보면 여전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우세가 보인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당정치는 양당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2.4 한국 양당정치와 무소속

이런 양당정치 국면에 부상하고 있는 무소속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자리를 잡으려면 자신의 힘으로만은 도저히 무리하다. 더 성장하기 위하여 여당이나 야당과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다.

3. 한국 무소속 세력 vs. 대만 제 3 세력

3.1 정의

제3세력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나라마다 다른데 여기서 본문에서 대만과 한국의

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세력 정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3.1.1 대만 제 3 세력

대만 민주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국민당과 민주진보당 양 정당 간의 대립이다. 이 사이에 제3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늘 있다. 대만정치 연구학자의 견해에 따라 제3세력이란 양당 사이에 끼어 있는 중도역량이며 국민복지 등을 의제로 하여 부동층을 이끌려고 하는 정치인을 가리킨다.⁴

이 정의에 의하여 실제 대만정치권에서 제3세력으로 인식되는 정치세력은 친민당, 신당, 녹당 (綠黨, Green Party Taiwan), 홍당, 그리고 무소속과 무소속연합이다.

3.1.2 한국 무소속 세력

본 문에서 무소속은 한국 정당정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정치인들을 가리킨다. 무소속 세력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의 싸움에서 허약한 민주당을 대신하여 나가겠다는 정치인들이다.

3.2 무소속과 제 3 세력

대만의 제3세력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a)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중도역량
- b) 국민복지, 사회통합 등 핫 이슈에 관심
- c) 부동층을 이끌려 감
- d) 실제로 진영대립을 피하지 못하고 한 쪽에 편입되어 있음

이를 한국 무소속 정치인들에게 적용해 보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 째, 가장 큰 공통점은 실제로 진영대립을 피하지 못하고 한 쪽에 편입되어 있는 점이다. 정치이념적으로 민주당과 노선이 비슷하며 현실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야당과 손잡아 된 것이다. 둘 째, 경제불황에 따라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이슈가 되는데 여야 모두 좋은 대책 꺼내기 못하자 이 문제들 해결하겠다는 무소속 정치인들이 부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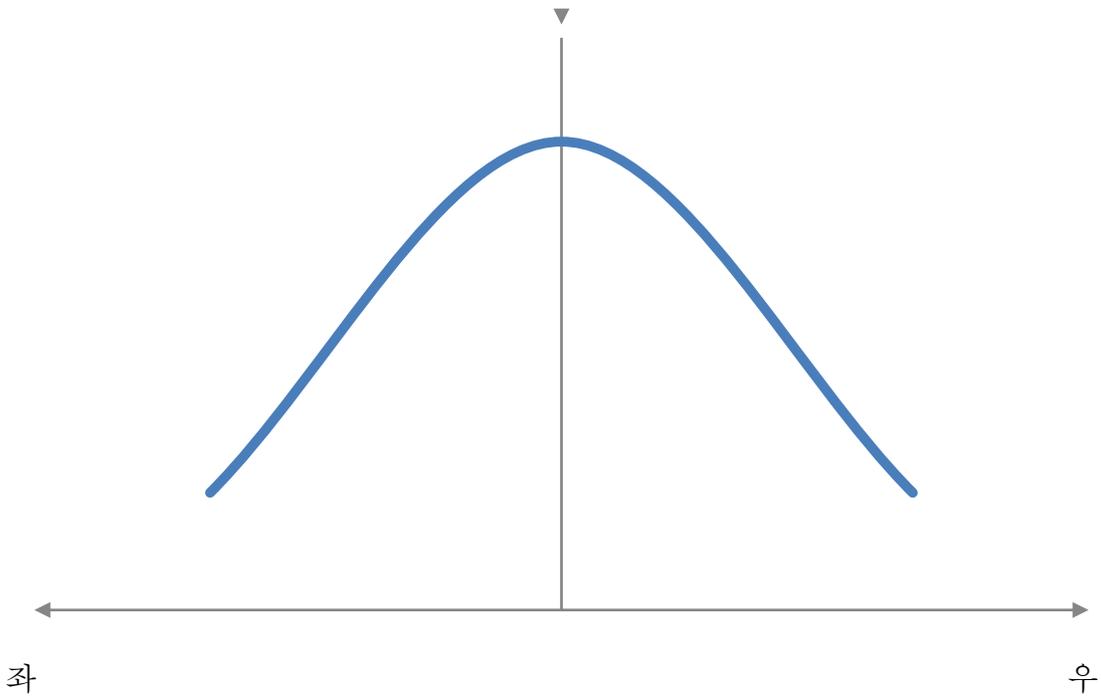
⁴ Analysis on the Developing Space of Taiwan's Third Political Forces: from the Pro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 SunYun & Wen Sheng-wu, Taiwan Research Quarterly, Vol. 3, 2009

차이점으로 볼 때 부동층이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20~30대 유권자들도 이끌려고 무소속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보다도 무소속 정치인들 등장하는 배경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야 된다. 한국의 경우, 민주당이 강했다면 제3세력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대만에서 중국국민당이든 민주진보당이든 힘이 약한 쪽이 없다. 물론 국회인 입법원에서 중국국민당 의원수가 더 많지만 양당 간에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무소속 정치인들이 대만 제3세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실제로 진영대립을 피하지 못하고 한 쪽에 편입되어 있음”이라는 공통점에서 나온 것이다.

4. 정당대립

정당대립 상화에 협력을 해야한다면 누구와 협력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계열을 나누어 볼 때 사회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좌우를 나눈다.



<표 3> 이상적 유권자 정치경향 분부⁵

⁵ The Party Politics and “Swing Voters” in Taiwan, Yang Jian, Forum of World Economy and Politics, Vol. 02, 2004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현대 서양 민주주의 모델로 하여 사회주의를 반대하면서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근본적인 정치이념으로 볼 때 대만에서는 중국국민당, 민주진보당, 그리고 다른 작거나 큰 정당들 간, 한국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정치인들 간에 큰 차이점이 없다.

대만 정당정치를 분석해 보면 제3세력과 여야정당의 관계는 크게 두 캠프로 나눌 수 있다:

1) Blue Camp- 중국국민당, 친민당, 신당 등

친민당과 신당은 다 중국국민당을 불신하고 불만하여 탈당한 정치인들이 세운 정당이다. 그래서 정치이념적으로 중국국민당과 크게 다른 바 없고 삼민주의(三民主義)와 통일을 추구한다.

2) Green Camp- 민주진보당, 대만단결연맹, 녹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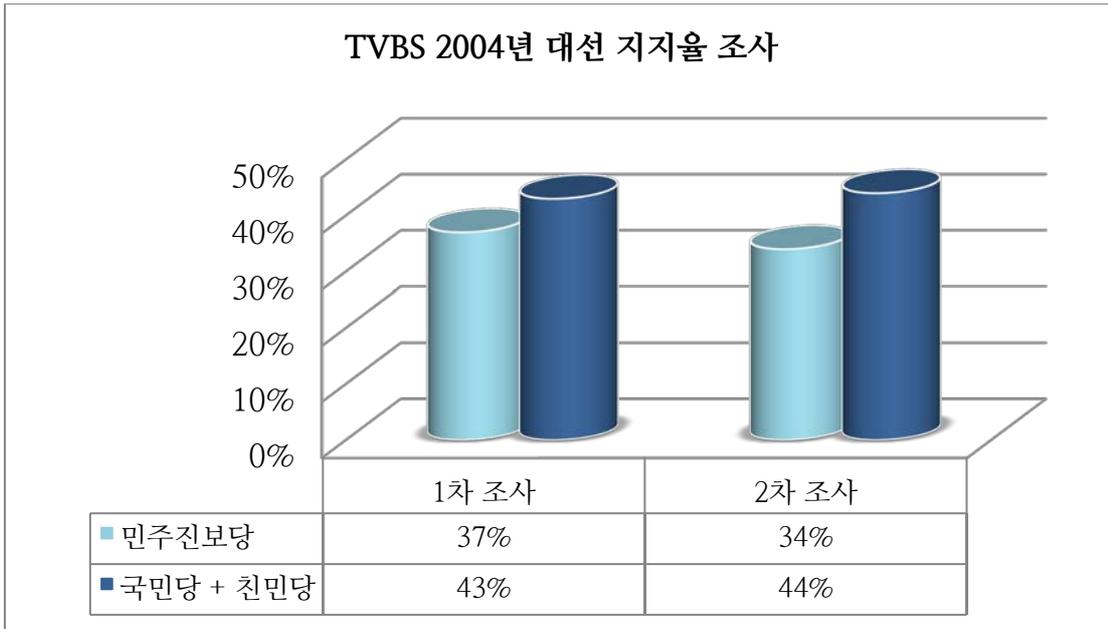
Blue Camp와 다르게 이 캠프는 중국국민당 독재 시대에 민주투쟁을 해 온 정치인들이 각자 만든 정당으로 형성된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3) Independent Camp- 무당단결연맹, 무소속

국민복지와 사회이슈에 초점을 두어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지만 정치이념과 노선에서 Blue Camp와 가깝다.

2004년 대만 대선을 분석하여 친민당과 국민당의 협력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2000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진행되면서 민주진보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 후로부터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을 비롯하여 Blue Camp와 Green Camp 간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대선 실패를 당한 국민당은 당내 개혁을 시행하고 당외 협력도 추구했다. 그래서 2004년 대선 때 국민당과 친민당이 협력하여 공동후보가 나왔다: 국민당의 Lien Chan과 친민당의 Soong Chu-yu. 마지막에 돌발사건 때문에 졌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꾸준히 큰 인기를 얻었다.



〈표 4〉 TVBS 2004년 대선 지지율 조사⁶

그럼 한국 무소속 정치인들이 누구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가?

4.1 새누리당이냐?

그럼 왜 무소속 정치인들이 새누리당과 연합하지 않은가? 첫 째,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몽준이 한나라당 입당한 것도 있었지만 요즘 부상하고 있는 무소속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새누리당과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새누리당의 협력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때에 경제불황, 남북대립, 안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새 정치를 표방하는 무소속 정치인들이 이명박 정부와 기성세력 대표인 새누리당과 협력한다면 신세대들에게 얻는 지지를 잃을 것은 필연적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안 원장의 지역별 지지가 경기·인천 49.3%대 34.1%, 대전·충청 49.8%대 32.3%, 광주·전남 55.1%대 21.0%, 전북 68.4%대 13.2%로 안 원장이 우세를 보였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서울 42.6%대 39.2%, 강원 52.8%대 40.7%, 부산·경남·울산 47.4%대 37.1%, 대구·경북 66.6%대 25.0%, 제주 70.4%대 29.6%로 앞섰다.”

—————〈안철수, 차기대권 가상대결서 박근혜 앞질러〉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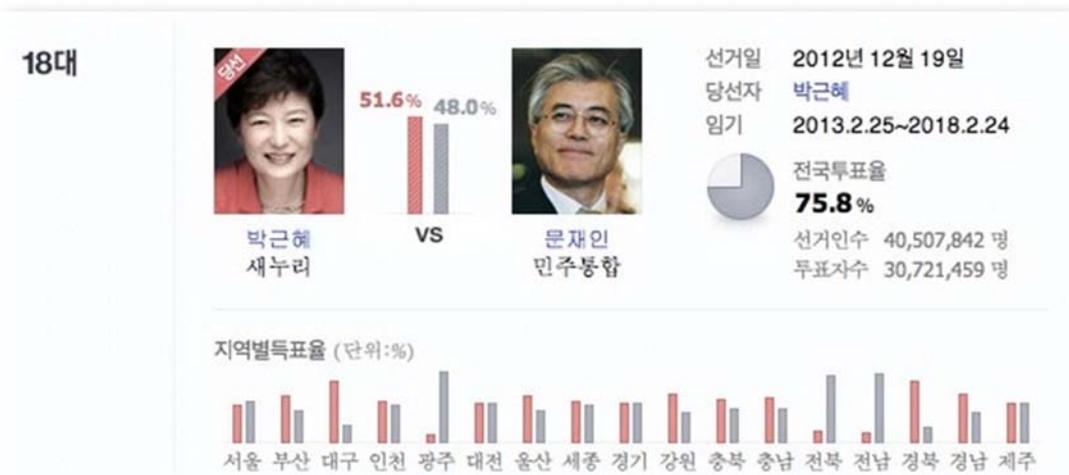
⁶ TVBS Poll Center http://www1.tvbs.com.tw/tvbs2011/pch/tvbs_poll_center.aspx

⁷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83237>

또한 안철수와 박근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과 무소속 정치인들의 지지기반이 전혀 다르니까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4.2 민주당이나?

반면, 무소속 정치인들이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무소속 세력은 등장할 때부터 약한 민주당을 대신하여 나선다고 한다. 이는 정치이념과 노선에서 민주당과 비슷하다는 말이다. 또한, 약할 수록 약한 자들이 모여야 법이니 민주진보진영과 협력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을 저항하기 위하여 민주통합당은 작은 정당과 손 잡을 필요가 있다. 그외에도 이명박정부때 야당으로 정부의 반대면에 서 있었으니까 무소속 정치인들과 같이 이명박정부와 야당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⁸

설문조사와 <그림 2>에 의하여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의 지지지역을 나열해 보면:

박근혜	문재인 ⁹	안철수	박근혜
부산	광주	광주	서울
대구	전북	전북	강원
인천	전남	전남	부산
울산	서울	경기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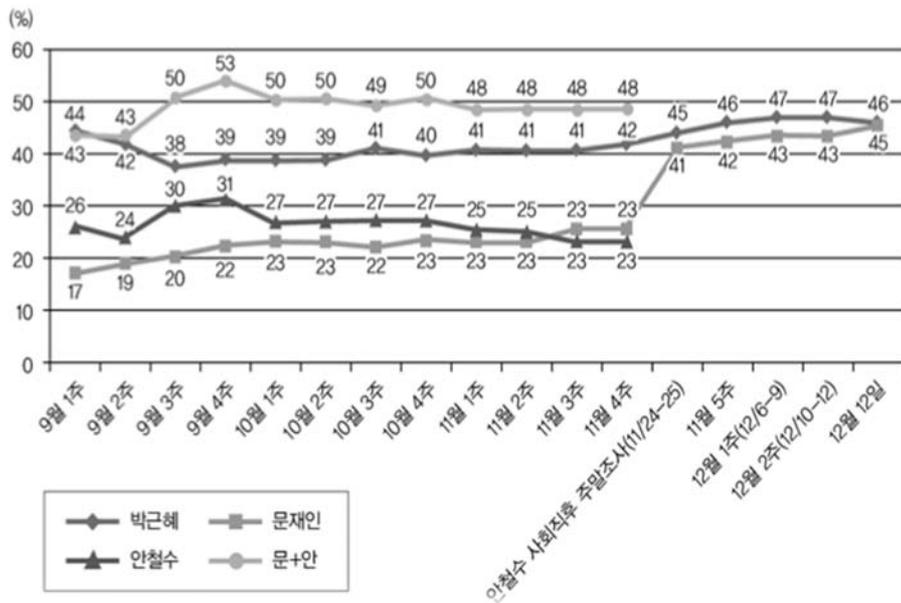
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83237>

⁹ 박근혜와 문재인은 대전, 경기, 제주에서 균세가 보인다.

세종		인천	울산
강원		대전	대구
충청		충청	경북
경상			제주

안철수와 문재인은 거의 같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또한 <표 5>를 보면 문재인과 안철수 간 후보단일화가 실현된다면 박근혜후보보다 1%에서 14%까지의 우세가 보인다.



<표 5> 2012년 9월 이후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¹⁰

안철수와 문재인의 연합을 기대하는 만큼 무소속 정치인들이 민주당과의 협력도 예상된다.

5. 전망: 무소속과 민주당의 미래

한국과 비슷한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지역은 대만이다. 대만의 케이스에서 무소속과 민주당 간의 협력을 전망하자고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한다.

5.1 전망

안철수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타격 주겠다는 설이

¹⁰ 18 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파국적 균형을 넘어서, 김정훈, 경제와사회, 2013년 봄호

계속 나온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16%, 민주당 지지자의 46.7%, 무응답층의 15.6%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과 민주당의 미래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가상이 있다:

1) 무소속 정치인들 공식적으로 민주당 입당

무소속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무소속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정치경험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후원자 필요하다. 또한, 약한 민주당이 개혁을 통해서 힘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자기를 대신하여 나선 무소속 정치인들을 흡수하여 당내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무소속 정치인들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2) 무소속 신당 창당하여 민주당과 협력

무소속 정치인들의 정당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무소속 정치인들끼리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로 하여 무소속 정치인들의 정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연맹을 맺으면 “신당”이 민주당에게 줄 타격도 피하고 18대 대선에서 높은 지지율도 다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본다.

3) 무소속 신당 창당하여 진정한 제3세력으로 등장

무소속 정치인들이 민주당과 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약한 민주당을 대신하여 나선다고 하니까 민주당과 비슷한 이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소속 세력이 부상하면서 정치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정치적인 이념과 주장이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소속 신당이 충분히 성장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뿐이다.

위에 3 가지 가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한 동안에 무소속 세력은 민주당을 비롯하여 민주진영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5.2 미래 무소속 신당이 대만 사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무소속 세력은 대만의 친민당, 신당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 협력 상대와 비슷한 정치이념과 노선

- 협력한다면 높은 지지율 얻을 수 있음

지금의 무소속 세력은 친민당과 신당 초창기 때와 같다. 따라서 아래 친민당과 신당의 발전경험이 무소속에게 아주 유용하다고 본다.

1) 국민당이 여당으로 변하면서 힘이 강해지지만 원낙 친민당은 그 동안 발전하기 덕분에 계속 독립적인 정당으로 정치 활동하고 있고 국민당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국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하면서 힘이 강해지자 신당 당원들이 대부분 국민당에 다시 입당했다. 신당의 영향력 떨어지며 제8대 입법원 선거에 실패했다.

참고문헌

1. Analysis on the Developing Space of Taiwan's Third Political Forces: from the Pro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SunYun & Wen Sheng-wu, Taiwan Research Quarterly, Vol. 3, 2009

2. South Korea Voters' Political Socializa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Candidate Support: Between the 17th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s, Jeonghun Han, Contemporary Korea, Vol. 01, 2013
3. The Party Politics and "Swing Voters" in Taiwan, Yang Jian, Forum of World Economy and Politics, Vol. 02, 2004
4. The Study on the Formulation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PFP, Lian Nian, Master Thesis, Xiamen University, 2002
5. The Study on the Party Relationships of Pan-blue Camps in Taiwan, Wang Lei, Master Thesis, Minzu University of China, 2010
6. 18 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파국적 균형을 넘어서, 김정훈, 경제와사회, 2013년 봄호
7. 안철수 현상의 의미와 민주진보 진영의 과제, 정상호, 시민과 세계, 2013.01

A Quantitative Research on Korean People's National Preference - the U.S. or China ?

■□ Jiajia Liu

(Korean Studies Major,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The discussion of Korea's position or choice between the U.S. and the rising China is not a new story. As early as in 2007, Chinese studies expert Jae-ho Chung published a book named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¹ discussing Korea's position at the crossroads between Dragon and Eagle². In the following year 2008,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published a book called *China or US: China's Rising and Korea's Security*³ showing that Korea's choice between the rising China and the U.S. is crucially related to Korea's security problem. When both the academia and the national level are worried about the new structure formed by the "G2 powers" and Korea's position between the two, what the Korean people's preference of the "G2 powers" is, has also been studi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nationwide opinion surveys. According to Table 1, Korean people's preference to China has been losing its preponderance in the recent 10 years while their preference to the U.S. has come up in an overwhelmingly dominant position.

What caused such national preferences towards the U.S. and China that both have extremely significant foreign relationships with Korea? Why and how did the Korean people choose to prefer one G2 power and at the same time to dislike the other? A quantitative research on Korean people's preference of the G2 powers is useful if study

¹ Jae-ho Chung,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² *Ibid*, pp. 108-121.

³ Chang-Hyung Lee, Hwa-Seob Song, Chang-Kwon Park, Won-Gon Park, Chang-Soo Kim eds. *China or US: China's Rising and Korea's Security* (Seoul: KIDA Press, 2008).

the inner reason behind Korean people's such national preference.

Table 1 Surveys of Koreans' National Preference (the U.S. or China)⁴

Source	Time of Survey	% of the preference to the U.S.	% of the preference to China
동아일보	2001.12.25	30	29
시사저널	2002.3.?	30	41
월간조선	2002.7.?	36	50
조선일보	2002.12.22	37	55
조선일보	2005.1.1	54	39
한겨레신문	2005.3.7	37	38
한국일보	2005.6.10	51	65
국민일보	2005.12.9	38	15
중앙일보	2005.12.22	46	11
조선일보	2005.1.1	54	39
중앙일보	2006.5.18	50	12
한국일보	2006.8.7	51	56
문화일보	2006.9.16	47	24
중앙일보	2006.12.23	58	57
EAI 여론브리핑	2007.3.6	35	32
EAI 여론브리핑	2008.4.2	49	40
경향신문	2008.8.15	45	15
조선일보	2010.8.12	71	6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9.7	71	4

Hypothesis and Methodology

To study the factors that influenced Korean people's preference of the G2 powers, **the author hypothesized according to literature reviews that variables such as age**

⁴ Collected by Jae-ho Chung in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1), pp.358-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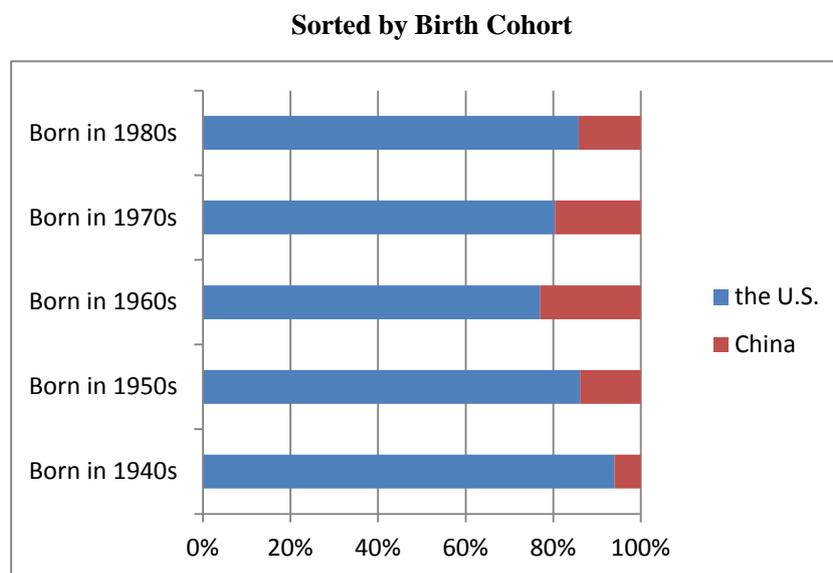
(or birth year), perception of North Korea, year of survey and sex might have impacts when the Korean people were making choices of national preference between the U.S. and China. If they do have an impact, then “how do the variables work”, and “in what logic can these factors influence people’s choices” are also questions to be solved in this short and probably incomplete paper.

Thus, the author employed the Cumulative Data (2003-2009) from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of Sung Kyun Kwan University to this research, where answers about Korean people’s national preference can be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Results and Analyses

First of all, the birth year of the respondents will be examined if it cast influence on Korean people’s national preference – to choose the U.S. or China.

Figure 1 Koreans’ National Preference (China or the U.S.)



From Figure 1 above, the choice ratio of China among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40s attracts the author’s attention. It’s far less than any age group, and coherently in this age group the percentage of those who chose the U.S. is the highest among all. Those who chose China are among those born in the 1950s and 1960s, and then the percentage dropped among those who were born in 1970s and followed by the 1980s

ag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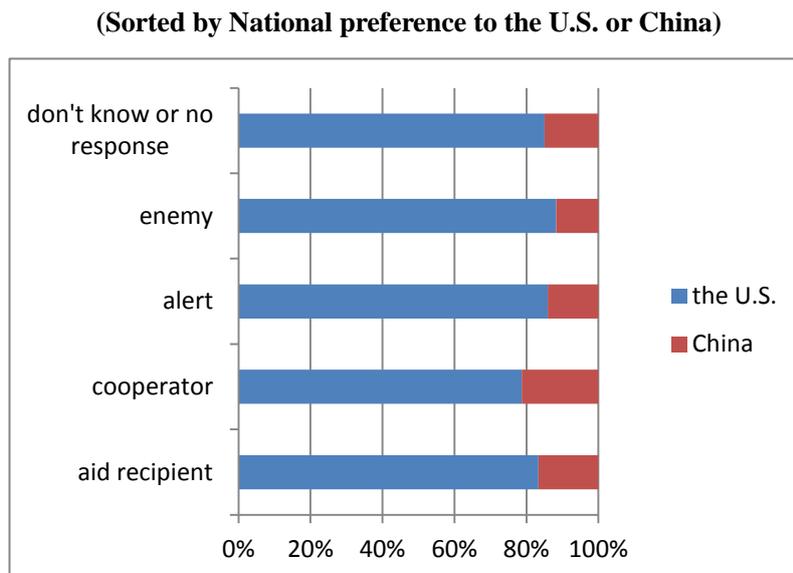
What caused this kind of difference between different age groups? This should be traced back to the Korean War time. For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40s which means they are the only age group that have a comparatively direct and clear memory of the war, the U.S. and China are on the opposite side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U.S. on the South while China on North Korea's side. Korean War is what gave rise to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The "North" and communist countries were the enemies to the South, ideologically and nationally, sinc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tarted. Since the South Koreans had already chosen the capitalism, then the communist China should have been on their opposite position. Simply put, for those who were strongly involved in the result and memories of the Korean War, for instance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40s, they are the least people to choose China even in the era "G2".

However, time flies and era changes. Korean War, together with the confrontation of the two camps could probably fade from Korean young people's memories. As close neighbors, China and South Korea did trade and cooperation, and as a result, the generation of 1960s and 1970s enjoyed the fruit of the friendly partnership with China. But unfortunately,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70s and 1980s may be exposed to the shady of China's social problems such as food security problems, social order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etc. because of Korea's more and more personnel exchange with China especially among the young people.⁵

Secondly, Koreans' Perception of North Korea is set as an important variable in considering its impact on Koreans' national preference. Since the Korean War is mentioned in the first part of analysis, the reason why "Perception of North Korea" is chosen can also be traced back to the Korean War time.

Figure 2 Koreans' Perception of North Korea

⁵ Xiangrong Dong, Xiaoling Wang, Yongchun Li eds. *How the Koreans View China* (Beijing: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2012).



Among the Koreans those who chose China, most of them regarded North Korea as a cooperator while those who stand on the U.S. side mostly treat North Korea as enemy. It's easy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from the same logic that North Korea and China were supposed together to be on the opposite side of Korea's national interest since Korea Peninsula was divided by war.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s North Korea was just the "wind vane" of his or her preference on the U.S. or on China. Since the ideology of the U.S. and China are always hardly compatible, once one chose one side, for example "pro-North Korea" or "against-North Korea", their political leanings are determined. In this way, instead of saying Koreans' perception of North Korea can affect their national preference to the U.S. or China, we can also say that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 is to some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ir preference to the U.S. or to China.

For further interpretations, we may find out it is North Korea that has been playing an inevitable role in the change of Korean people's social emotion on China. Whenever North Korea did something disappointing, China would be blamed from the South Korea side. And this point can also be illustrated from the next variable.

Thirdly, year of survey is also a crucial variable to be exam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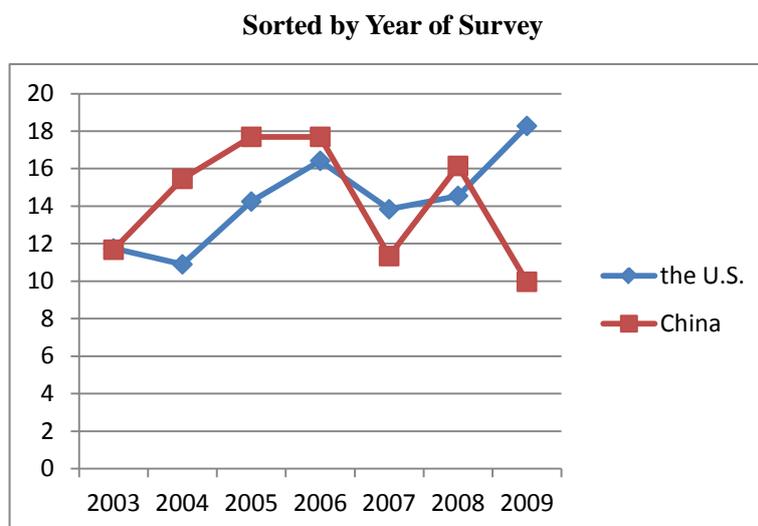
Figure 3 Koreans' National Preference (the U.S. or China)

Figure 3 illustrates this point clearly that some important issues must have happened between 2006 and 2007, 2008 and 2009 which caused the drop of Koreans' national preference to China. To trace back the big issu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06** North Korea claimed nuclear test and China failed to prevent North Korea's "crazy action" from happening again. As what has been stated in the first and second part of analysis, China is sometimes bond to be responsible for North Korea's "crazy action" that might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South because the two countries have been regarded as allies from the Korean War time. Thus, China has no better choice but to accept the fact that Koreans' national preference to China would be hardly achieved if something satisfactory especially militarily happene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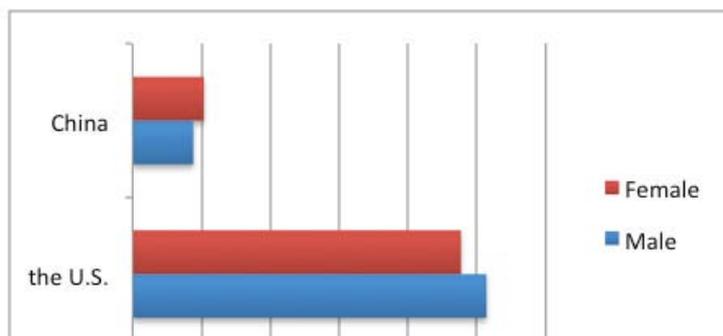
This kind of issue tha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s' national preference to China can also be found **in 2008**. For instance, during Beijing Olympic Games, there were some unhappy atmosphere between the athletes and spectators of the two

⁶ According to *Survey on National Consciousness of Korea and China* conducted by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nd East Asian Institute in 2011, 69.2% of the Korean respondents believed that China would support North Korea in the event that South and North Korea clash militarily, which was quoted by Jung-nam Lee in "Faltering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the G2 Era" published as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6. This point could be interpreted as follows: if most of the Korean people believe China will support North Korea during a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y will never prefer such a country that has a stand on the opposite side of their country's security.

countries. This kind of nongovernmental social emotions can also account for the drop of Koreans’ favorability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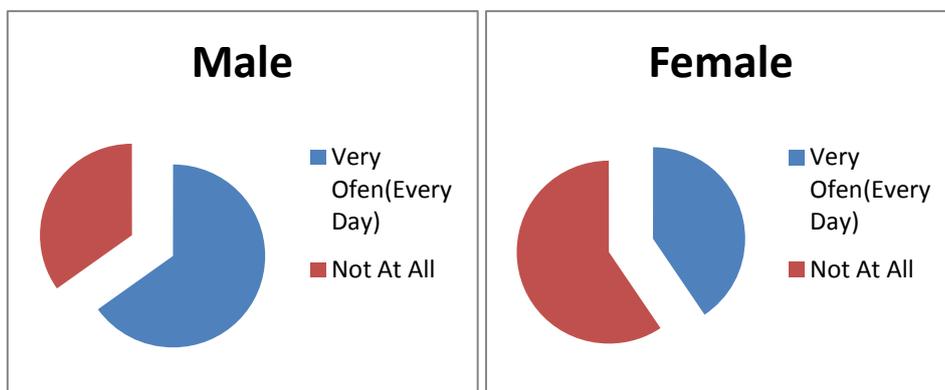
Fourthly, sex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ther it’s possible to exert any influence on Koreans’ National Preference.

Figure 4 Koreans’ National Preference (the U.S. or China)
Sorted by Sex



As is shown in Figure 4, more men prefer the U.S. than women while more women prefer China than men. Many kinds of possibilities may be inferred from this result, but here the author will only propose one kind of supposal. What if it is because of their different concerns of political issues and different interests i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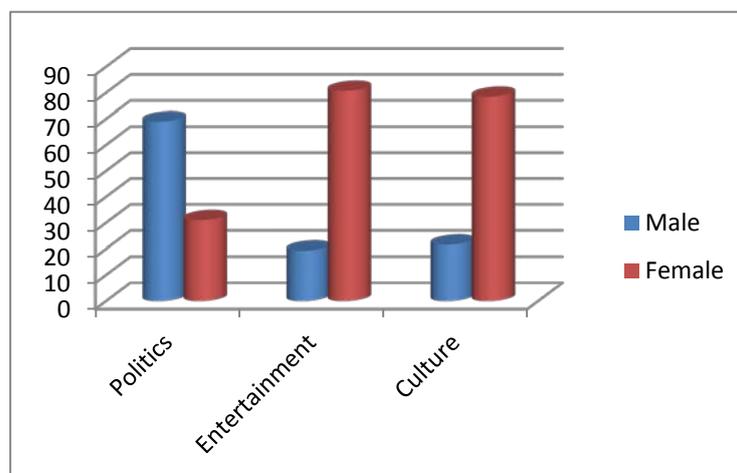
Figure 5 Korean People’s Concerns of Political News (Sorted by Sex)



From Figure 5, it’s obvious that Korean men are much more keen on political news than Korean women. This may probably lead to their different choice of the G2 powers,

for the reason that political issues are often supposed to have main and great affect on foreign relations that will affect people's national preference promptly and directly. For women, compared to political new, they prefer the entertainment news or culture news much more according to Figure 6. In this sense, for those who intend to get in touch with politics news (men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result), are more easily to be influenced by the alli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so that they prefer the U.S. to China. According to Jae-ho Chung (2011), Korea-US alli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at cast negative influence on Korea-China.⁷ And for those who are more interested in entertainment and culture news (women in the statistical result), their national preference is likely to be influence by their strongly affection on a country's entertainment or culture, let's say on China's TV drama, movies, music, culture and so on.

Figure 6 Korean People's Interests in News' Kind (Sorted by Sex)



Finally, to double check the credibility of the results above, regression (Table 2) is done between the 4 variables discussed namely the respondents' birth cohort (age), perception of North Korea, year of survey, sex and education level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national preference (dependent variable). From the regression

⁷ Jae-ho Chung, *Worrying about China: the Dilemma and solutions of Korea-China Relations*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1).

result, it's found that only three variables have a “<.0001” Pr value which are perception of North Korea, year of survey and sex. This means these three variables are proved to have real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preference, since the smaller the Pr value is, the more significant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o the dependent variable (usually Pr values smaller than 0.001 mean the most significance). Although the Pr value of both the rest 2 variables are shown as comparatively bigger, “0.0228” can also be considered as a convincing value in proving its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but just less convincing than the three with a Pr value of “<.0001”.

Table 2 Regression Result

Dependent Variable: sedistan 국가선호도 :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

Number of Observations Read	10382
Number of Observations Used	10382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433.26550	86.65310	27.28	<.0001
Error	10376	32953	3.17591		
Corrected Total	10381	33387			

Root MSE	1.78211	R-Square	0.0130
Dependent Mean	2.33905	Adj R-Sq	0.0125
Coeff Var	76.18951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Label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Intercept	1	170.46821	17.78739	9.58	<.0001
age	응답자 연령	1	-0.00115	0.00050598	-2.28	0.0228
northwho	북한에 대한 인식	1	0.06341	0.01355	4.68	<.0001
year	조사년도	1	-0.08400	0.00887	-9.47	<.0001
sex	응답자 성별	1	0.14677	0.03527	4.16	<.0001
degree	응답자 최종학력	1	0.00450	0.00227	1.98	0.0480

By now, conclusion can be drawn that perception of North Korea, year of survey and sex definitely affect Koreans' national preference. Meanwhile, age is a variable though not as convincing as the above three, still played a role when the Koreans perceiving national preference.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 proves the author's hypothesis more statistically convincing.

Short Conclusion

After the quantitative research on the factors that gave rise to Korean people's preference to the U.S. than China in general, it can be found that efforts need to be done to improve Korean people's positive perceptions on China since it has become one the leading G2 powers and geographically important to Korea. Just to name a few, the improvement of traditional negative perceptions on China of the generation who had experienced the Korean war, and the 20s to 30s generation may need t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possible ways. And the encouragement for women to get access to political news while for men to get access to more cultural news on the G2 powers may also be one way out. What's more important, this research provide evidence not only to the suggestions above but also to the significance to enhance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more peaceful the Korean peninsular is, the more balance Korean people's choice between the U.S. and China would get.

THE PUBLIC ROLE OF PROTESTANTISM AND ITS SOCIAL IMPLICATIONS FOR THE GAY COMMUNITY IN KOREA

Serna, Saul, Kangwon University

This paper is written on the premise that due to religious fundamentalism, historical influenced by the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the human rights' debate for the gay community has generated resistance in both popular and political arenas. For example, at the start of 2013 there were three drafts of anti-discrimination law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enned by lawmakers from Democratic Party and Unified Progressive Party, to outlaw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ther social interactions on the grounds of age, gender, race, disability, faith, and most notably sexual orientation. However, Christian groups vowed not to support any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unless the homosexuality aspect was dropped and threatened that any political efforts to push equality for gays and lesbians would have negative repercussions" (Kim, 2013).

Why the actual Korean democracy –built by oppressed people who fought for their fundamentals rights– is influenced by Protestant Christianity¹ when sexual minorities² demand to become politically visible? Currently,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re opening up public spaces for sexual minorities leaving aside religious ideologies that condemn consensual adult same-sex love relationships. Therefore, the question suggested is significant. Liberty and equality are two of the values most important to any country that incorporates the democratic ideals of government in its legislation (Koggel, 2006: 185). However, the coexistence of these principles may seem to engender tension. Strik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 ideals has to be the challenge for the Korean government. This fact lead us to the following intriguing question: Why is that in Korea,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re is very great resistance –mainly from Korean fundamentalist churches– for equality in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laws that benefit sexual minorities?

Korean people's averag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homosexuality is ambiguous and limited (Kim, 2006: 59). As Kim Young-Gwan points out "in the absence of knowledge and open communication most Korean people imagine that homosexuality is an impure modern phenomenon" (Kim, 2006: 59) that threatens their contemporary cultural

¹ By Protestant Christianity I refer to the conservative and fundamentalist churches.

² By sexual minorities I refer to the gay, lesbian, bisexual, intersex and transgender.

imag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role of Protestant Christianity and the violation of the sexual minorities' fundamental rights by exploring both the ancient history of the practice of male homosexuality and current rhetoric of Korean Christian fundamentalists,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formation of Korean democracy and hindered in those endeavors to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gainst the current discrimination of sexual minorities.

Different Korean scholars points out that homosexuality was mentioned in Korean ancient literature and traditional accounts. Two examples of ancient homosexual groups in Korea were the *hwarang* and the *namsadang*. The *hwarang* were leaders of a military group in the Shilla dynasty, who according to Kim Young-Won, had a "penchant for sexual intercourse with same-sex partners" (Kim, 2006: 61). The *namsadang* was a theatre in the Chosun dynasty where actors reportedly made money by means of homosexual prostitution (Kim, 2006: 62).

Other ancient examples include Hyekong, the thirty-six king of the Shilla dynasty, who's behaviour was described as a man by appearance but a woman by nature. Wonsung, the thirty-eight king of the Shilla dynasty, was said to be involved in same sex relationships, while Kongmin, the thirty-first king of the Koryo dynasty, was described as a man who fell in love with young boys. King Sejong's daughter-in-law was also said to have been expelled from the palace after sleeping with her maidservants (Cho, 2011: 307). Surprisingly, the canonical scriptures of Confucianism—which has had substantial influence on Korean history— does not condemn gay male relationships, “unless they interfere with their filial responsibility to prosper and maintain family lineage” (Cho, 2011: 301). Usually, “same sex desire had been ignored or seen as a shame, instead of and obscenity, a disease, moral decay or sin” (Cho, 2011: 301) like Christian fundamentalist claim.

There was a point in Korean history when theological interpretations took over the actual anti-homosexual popular feeling. September 1884 marks the formal introduction of Protestantism in Korea (Kim, 2001: 267). The Korean geopolitical situation, poverty and oppressive officialdom creat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common people —miserable in extreme— to “embrace a new value system offering them hope and a way out of their misery” (Kim, 2001: 268).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Christianity suffered severe oppression from Japanese authorities; afterwards, the Korean War (1950-1953) devastated the country and claimed millions of lives (Kim, 2000: 118). Despite decades of oppression, it was not until the 1960s, 70s, and 80s when Protestantism in South Korea experienced rapid growth, because, first —according James Grayson's theory

of emplantation³ – the Protestantism empowered the Korean Confucian-minded, specially those principles related to moral values and ethics, and provided hope and certainty to overcome the hopelessness and sense of discontent. And second, because once Protestantism provided the “tools of modernization, such as western medical science, modern education and technology, Christian churches assumed a key rol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modernization of Korea, and many Koreans embraced not only as a means of entry into modern society but also as access to what they believed to be a more advanced civilization” (Andrew, 2001: 278).

It’s not until the 1990s that Korea saw the emergence of both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CCK)⁴ and the “gay rights” movement (Cho, 2011: 299). What I want to reiterate and focus on is not a dogmatic theological question. I am rather interested to explain how Protestant churches were able to acquire as much political power and influence in order to impose their dogmatic assertions about homosexuality up to the point of having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I suggest that on such a sensitive issue as homosexuality, in the midst of a culture where submission to authority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Korean society, it is not easy to confirm clearly and honestly if the churchgoers are opposed to anti-discrimination laws. On one hand, biblically, people have to obey the pastors; and culturally, should obey, respect, and not cause offence the elders and authorities (most of the time above personal desires). In the case of churchgoers agreeing to support anti-discrimination laws, they do not have freedom to express themselves inside their communities and perhaps hesitate saying anything at all for fear of rejection. According with Eunai Shrake “some people argue that Korean Christianity is basically a ‘Confucian-Christianity’ [where] Confucian hierarchy is intertwined with the fundamentalist theological leaning...” (Shrake, 2009: 150). This Confucian structural influence explains why the ecclesiastical authority can silence the congregation.

On other hand, according with the 2005 census, Protestant Church membership decreased 1.4% (Kim, 2012: 65), that means in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50 million, nearly 12 million follow Christianity, or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combined (Choi, 2011: 92). Furthermore, according with Jin-ho Kim, by 2005 overall Protestant Church membership put the total at approximately 8.6 million members (Kim, 2012: 65), and among them there is a minority which corresponds to liberal-leaning. Needless to say, the influence of conservative groups in anti-discrimination policies cannot be explained in

³ The theory asserts tha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 missionary religion in a host society is contingent upon five sets of related factors: resolutions of contradictions; tolerance of the faith; overcoming linguistic obstacles; resolution of conflicts; and comprehensi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Kim, 2001: 269).

⁴ Representative Christian fundamentalist organization.

function of its number of members, but in function of cultural and political weight. Evaluating the influence of Protestant churches could be partially explained because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ctors during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It played a formative social role as it would in a Christian state...” (Kim, 2012: 79). Furthermore, in a country deeply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the churches’ anti-Communist discourse and also the political alliances between Protestant fundamentalism and far-right conservatism increase its social capital and underpins most social action in civil society.

However, Korean Protestantism has been unable to properly respond to social changes. “Consequently, a large number of reformist and critical Christians either left the church or became discouraged and relegated themselves to the periphery of the church” (Kim, 2012: 71). This has become a real challenge because Protestant membership between 1995 and 2005 has decreased (Cho, 2011: 303), and its religious consumerism, combined with ethical corruption and ensnared by past paradigms has led the society to distrust the church (Choi, 2011). In its attempts to socialize and nationalize Christian philosophy, “promoting laws based on Christian ethics as well as gathering political forces that advocated anti-North Korean policies” (Kim, 2012: 83) forgets the growth of consumer society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emergence of a new citizen with different interest and needs.

Faced with this landscape, Korean Christian fundamentalists aim to enforce their hegemony and credibility in Korean society building up their bases of support (Cho, 2011: 299). Agitated by the fear of losing their power, Christianity became the major leadership of anti-gay groups. This would suggest that there are “significant political factors behind the fundamentalist anti-gay movement” (Cho, 2011: 302). As Rev. Hong Jae-chul, CCK’s chairman, referring to the issue of anti-discrimination laws, stated:

“The spread of homosexuality would bring chaos to society. Isn’t obvious who would benefit from that? Any disruption in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will play to North Korea’s favor. The leftists have always been doing things like this and this is why the CCK exists: to stop them” (Kim, 2013).

In light of these statements it is possible to observe how CCK exploits this sensitive political situation for creating fear, mobilizing recruits and taking the leadership role among Christian fundamentalist groups. With large numbers of churchgoers who feel threatened by an anti-discrimination bill –that Conservative Christian groups describe as satanic (Kim, 2013)– it is easy to combine homophobia with two classic fundamentalist ideologies effective in Korean society: nationalism/patriotism and anticommunism (Cho, 2011: 299). In other words, although the reality of today’s society is different, evangelical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combined with an anti-gay rhetoric are mechanisms for transforming faith into [no inclusive and equitable] political ideology (Cho, 2011: 311).

Regarding the topic of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the line taken by many of the Korean political representatives is of a total subordination to the conservative agenda. The Democratic United Party lawmakers stated “they would not move on without the blessing of church groups” (Kim, 2013). There is no single explanation for understanding such Christian political empowerment. First, the conservative alliances are capable of inducing macro-mobilization in a specific situation because they are not limited to the Christian coalitions but extend to with non-religious groups who share ideological similarities (Kim, 2012: 82). The political parties do not want to lose votes. Second,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toleration are best preserved if religion is removed from public affairs” (Bader, 1999: 598). This case shows that separation between religious beliefs and public policy is not clear among believers with political vocation. It looks like the interests of lawmakers are mixed with their religious principles clearly being driven by a conservative agenda that wants to impose by law religious beliefs in a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country.

Finally, according to Jin-ho Kim “the objective of Christian political empowerment [...] is to transform society into a world of the church” (Kim, 2012: 85), seeking sanctification of society. However, this aim, besides invading not only individuals’ personal lives, diminishes consciousness to social public awareness rather than consolidate co-existence and negotiation. It is not possible legally to enforce the principle of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though diverse ideologies believe it. Behind each legislation submitted there is not only political power, but people with interests, aspirations and demands towards building our collective future. Democracy must guarantee this basic human right.

REFERENCES

- Bader, Veit. 1999. 'Religious Pluralism: Secularism or Priority for Democracy?' *Political Theory*, Vol. 27, No. 5 (October) pp. 597-633.
- Choi, Dongkyu. 2011. 'Growth and stagnation of the Korean church', 신학과 실천 [Theology and Praxis], 제 29 호 pp. 117-156 1229-7917 KCI.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 Choi, Joon Sik et al. 2011.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n Culture*. Jimoondang. Korea.
- Cho, Min-ah. 2011. 'The Other Side of their Zeal: Evangelical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in the Korean Christian Fundamentalist Antigay Movement since the 1990s', *Theology and Sexuality* 17/3 297-318.
- Kim, Andrew. 2000. 'Korean Religious Culture and its Affinity to Christianity: The Rise of Protestant Christianity in South Korea'. *Sociology of Religion*, 61/2 117-133.
- Kim, Andrew. 2001. 'Political insecurity, social chaos, religious void and the rise of Protestantism in late nineteenth-century Korea', *Social History*, 26:3, 267-281.
- Kim, Jae-won. 2013. 'Lawmaker pushes bill against gay soldiers.' *The Korea Times*. http://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3/04/113_134536.html (accessed July 24, 2013).
- Kim, Jin-ho. 2012.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Korean Protestantism since around 1990', *Korea Journal*, Autumn.
- Kim, Tong-hyung. 2013. Crusade on gay legislation. *The Korea Times*. http://koreatimes.co.kr/www/news/culture/2013/04/135_133912.html (accessed July 24, 2013)
- Kim, Young-gwan, Hahn, Sook-ja. 2006. 'Homosexuality in ancient and modern Korea', *Culture, Health & Sexuality*, 8/1 (January-February): 59-65
- Kim, Young-jin, and Kim, Tong-hyung. 2013. 'Gradually accepted, politically invisible.' http://koreatimes.co.kr/www/news/culture/2013/06/135_137828.html (accessed July 24, 2013).
- Koggel, Christine M. (ed). 2006. *Moral issues in global perspective*. Volume I: Moral and Political Theory. Broadview Press. Canada.

Murray, Stephen O. 2000. *Homosexualities*.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Accessed by Google Books July, 24th 2013.

http://books.google.co.kr/books?id=GfH6Nc8HHFwC&pg=PA169&lpg=PA169&dq=namsadang+gay&source=web&ots=AMvf3zpS60&sig=YzCxnVhByjf7ROiQEhgcZ14LYOA&hl=en&sa=X&oi=book_result&ct=result&redir_esc=y#v=onepage&q=namsadang%20gay&f=false

Shrake, Eunai. 2009. 'Homosexuality and Korean Immigrant Protestant Churches', in Gina Maequesmay and Sean Metzger (eds), *Embodying Asian/American Sexualities*. Lexington Books, United Kingdom.

왜 한국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외국인보다 덜 두려워하는가?

Why Korean people are less fearful of North Korean's threat than foreigners?

WANG HAIXU / Hanyang University

서론

2 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60 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거나, 서울의 중요목표를 파괴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특히 작년 12 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올해 3 월 11 일부터 한미(韓美)간에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한 후에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 되어갔다. 심지어 북한은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고, 3 월 30 일에는 남북간 전시상황 선언까지 선포하였다. 4 월 9 일 북한은 “남한 내 외국인들은 대피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한국 매체들은 북한이 10 일 후에 중거리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은 공포스러운 시간이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도 급감했으며, 한국에 있던 많은 외국인들도 불안에 떨었다. 그때 필자가 있는 한양대학교에서도 많은 외국 학생들은 국제협력처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 하였다. 휴학을 신청하려는 학생도

있었지만 휴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귀국을 하는 학생과 자퇴한 학생까지 있었다.¹ 물론 한국사람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외국사람들과 같은 큰 소란은 없었다. 인터넷을 보면 간간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 이었다. 실제로 지난 4 월 필자가 한국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국사람들 중 전쟁에 대해 거의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²

북한은 한국의 큰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도 한국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평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점이 굉장히 궁금했고, 이는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다. 본 연구는 이후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외국인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주로 2013 년 북한의 도발 위협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I. 많은 경험을 통한 심리 면역력

한국 사람들은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북한과의 충돌과 위협을 많이 겪는 동안 심리적인 인내심이 늘어났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외국인들 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덜 두려워한다고 볼 수

¹ 이 정보는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처 김미예 선생님 제공하였다.

² 한국 사람 11 명, 외국인 8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 중 전쟁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으며, 외국인 중 걱정하는 사람은 5 명,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3 명이 있다.

있다.

4 월 6 일 주부 이모씨는 뉴욕타임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그간 계속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위협에 처한 건 확실해 보이지만 실제 이곳에서 살면 그것에도 익숙해진다”며 “대단한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³ 필자의 조사도 비슷한 결과 나왔다. 한국 사람들 11 명 중 5명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물가불안이다. 따라서 신문을 통해 사재기 현상을 검토하면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993 년 3 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사건 당시에 일부 국민들이 전쟁 발발설(勃發說)로 인해 사재기 소동을 벌이는 등 불안해하고 있었다.⁴ 1994 년 6 월, 북한 핵과 관련된 사회 불안 심리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쌀과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급속히 번지고⁵ 라면 업체 일주일 안에 20% 정도 늘어난 적도 있다.⁶ 하지만 1994 년 7 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을 당시의 신문을 보면, “국민들 놀라움과 충격 속에 당황하기도 했으나 전쟁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 때문에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의 사재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발전된 국민 의식을 보여주었다.”⁷ 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올해에도

³ 조선 일보 2013.04.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7/2013040700075.html

⁴ 한겨레 1993.03.19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1900289101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3-19&officeId=00028&pageNo=1&printNo=1506&publishType=00010>

⁵ 한겨레 1994.06.16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600289103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6&officeId=00028&pageNo=3&printNo=1927&publishType=00010>

⁶ 한겨레 1994.06.1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70028910700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7&officeId=00028&pageNo=7&printNo=1928&publishType=00010>

⁷ 매일 경제 1994.07.11

북한은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위협하였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⁸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학습효과”이다. 그동안 북한은 항상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때때로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이 위협을 해 왔으며,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통해 더욱 위협적인 면모를 과시해 왔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처음에는 크게 당황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말 뿐이고 실제로 이어지지 않아 온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학습효과를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점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해졌다는 인식에 의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심리적 거부”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한 무엇인가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면 인지된 현상을 잠재적으로 억누르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띤다. 재앙과 같은 결과가 닥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저서 「문명의 붕괴」에서 개인 심리학에 잘 들어맞는 “심리적 거부” 현상이 집단 사고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댐 아래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보통 댐으로부터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댐이 무너지는 위험을 더 많이 느끼고 멀리 있는 마을은 위험을 덜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71100099131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7-11&officeId=00009&pageNo=31&printNo=8810&publishType=00010>

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4/2013040401857.html

멀리 있는 사람들이 댐의 붕괴에 대한 위험을 가장 크게 느낀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이 덜하다. 왜냐하면 매일 매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댐이 붕괴 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⁹

한국 사람들은 댐 아래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댐으로부터 멀리 있는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수십년 전부터 바로 이런 위협속에서 생활해 왔다.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심각하게 걱정할 수 있겠지만, 매일 매일 걱정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점점 “심리적 거부”를 보이는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태연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상황이니 감내하는 것일 뿐일 수 있다.

심리적 거부 태도는 학습효과와 결합하면 더욱 굳건한 자기확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효과와 심리적 거부는 상호 강화작용을 통해 한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대한 학습효과나 심리적 거부와 관련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북한의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도발 행동을 보면 불안과 걱정이 생기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은 한국 사람보다 더 불한해질 수 있다는 이해하기 쉽다.

II 북한에 대한 이해 정도

⁹ Diamond J.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revised edition[M]. Penguin. com, 2005. pp.435-436

수십년 동안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연구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의 목적과 특징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외국인보다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람 11 명중 5 명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 경제 등 측면에서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다. 교수들뿐만 아니라 회사원,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모두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연구 전문가 아니라도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다. 조사 대상의 인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령 전쟁이 진짜 시작하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권을 멸망시킬 것이다. 김정은이 자기 권력의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매우 작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 현황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라도 오래 못 버틴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조건에서 어설픈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고 예상했다.

북한 행동을 보다 깊이 분석해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북한 위협 사건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국내 정치 안정과 김정은 집권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도자 김정은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 대단한 지도자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리더로서 자기의 능력과 권위를 민중에게 보여 주고 싶어하기도 하는 한편, 군내 장군들로부터 인정 받음으로써,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 정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 자국이 핵 보유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 받기를 바라며, 이것을

조건으로 미국과 회담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사람에게 위기감도 줄 수 있으므로 심리전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진짜 전쟁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학습효과 및 심리적 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자기 확신 증강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학습효과라는 경험과 심리적 거부라는 정서적 측면에 더해 합리적 분석에 기초한 북한 행동의 이해와 예측이라는 이성적 사유의 측면이 결합되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북한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쉽게 불안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항상 말을 앞세우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위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8명 중의 외국인 학생 중에서 3명만이 전혀 걱정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 없다고 했다. 두 명은 박사과정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반면에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북한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III 언론 영향 차이

한국의 언론은 직접적으로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영향력은 적다. 다수의 한국 언론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뛰어나며 전쟁을 일으키면 한미동맹 덕분에 분명 북한을 이길

것이고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들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조사 대상 11 명 중의 7 명은 거의 매일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비교적 논리적인 태도를 보여준 5 명은 매일 뉴스를 보고 있었다.

지난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처음 공언한 이후, 북한은 서울·워싱턴 불바다 발언(6 일), 서해 5 도 포 사격 훈련(14 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15 일), 국가 급 상륙 훈련(25 일), 군 통신선 차단(27 일), 전략미사일 사격 대기 지시(29 일) 등 가용한 카드를 한 장씩 꺼내는 ‘살라미 전술’과 일련의 무력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패턴은 한·미 양국에 ‘전쟁 공포증’을 부각시키며 정세 주도권을 쥐려는 전형적인 심리전으로 해석된다.¹⁰

김형 청와대 대변인은 9 일 북한이 남한 내 외국인들에 대해 대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¹¹ 위와 같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한 뉴스는 “naver” 에서 “북한 심리전” 검색어를 치면 총 430 건이나 나온다.(3.30~4.15)

반면에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국신문과 방송을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없고, 모국의 뉴스는 남북간의 사태를 과장되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욱 쉽게

¹⁰ 서울 뉴스 2013.04.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1004017>

¹¹ 이데일리 뉴스 2013.04.0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624006602774480&DCD=A00601&OutLnkChk=Y>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한 덴마크의 기자는 “현재 덴마크 뉴스의 3분의 1은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며 “많은 덴마크인들이 전쟁이 날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의 보도 역시 긍정적인 분석과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보였다. 특히 4월 10일 장렌구이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확률이 70%~80%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¹² 당시에 이 기사를 비롯한 부정적인 기사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증가 되었다.

조사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8명중 5명은 모국의 부모들이 많이 걱정한다는 것 알 수 있다. 유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모국의 매체를 통해 북한 사태를 접하며, 대부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 또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조사 대상 8명의 유학생 중 2명만이 항상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2명은 가끔 접촉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한국 뉴스를 안 보거나 한국어 신문과 방송은 보기와 듣기가 편하지 않아서 별로 접하지 않다고 말했다.

IV 선택 여지 차이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외국인은 처음부터 한반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공부나 여행 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는 확률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그

¹²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3-04/3813416.html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조사 대상 중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씨는 위험을 피하고자 귀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A대학의 파라과이 유학생 B씨는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전쟁위협이 없는 대만으로 11 일 일주일간의 피신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¹³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더욱 취약해지고 이런 피난 선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에 비해 선택 여지가 없으므로 두려움을 감수하거나 이기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몇 마디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달리 갈 곳이 많지가 않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요컨대 북한의 위협을 대할 때 한국 사람들이 더욱 안정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도발을 많이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면역력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접하게 되고 연구 전문가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다. 게다가 한국의 대중 매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동시에, 정부나 전문가의 긍정적인 분석과, 전쟁이 발생 할지라도 꼭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보여준다. 이 모든 요인들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 비해 선택의 여지가 많은 많은 외국인들 오히려 더 위협에

¹³ 충북일보 2013.04.11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81845>

취약하게 된다.

위의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 북한의 위협 하에서 외국인들의 불안을 해소 시키는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해 많이 소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행동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줄 수 있다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대중매체들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도 국외에서 한국의 실력과 자신감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 외국의 매체에서도 더 긍정적인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외국인들의 심리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추후에 북한의 위협 상황 하에서 외국인들의 큰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Diamond J.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revised edition [M]. Penguin. com, 2005. pp.435-436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4/2013040401857.html

[3]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3-04/3813416.html

[4] 이데일리 뉴스 2013.04.0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624006602774480&DCD=A00601&OutLnkChk=Y>

[5] 조선일보 2013.04.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7/2013040700075.html

[6] 서울 뉴스 2013.04.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1004017>

[7] 충북일보 2013.04.11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81845>

[8] 한겨레 1993.03.19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1900289101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3-19&officeId=00028&pageNo=1&printNo=1506&publishType=00010>

[9] 한겨레 1994.06.16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600289103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6&officeId=00028&pageNo=3&printNo=1927&publishType=00010>

[10] 한겨레 1994.06.1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70028910700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7&officeId=00028&pageNo=7&printNo=1928&publishType=00010>

[11] 매일 경제 1994.07.1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71100099131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7-11&officeId=00009&pageNo=31&printNo=8810&publishType=00010>

첨부 자료

조사 자료

한국 사람

순번	이름	나이	신분	관점이나 행동
1	여지연	20 대	대학생	북한에 대해 관심 없다. 북한 심심하면 몇년 한번씩 이런 사건 만들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때로는 naver SNS 등 도구를 통해 뉴스를 본다.)
2	이은옥	20 대	대학생	하나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 팔생했을

				<p>때 많이 두려워했고 걱정했는데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때로는 naver SNS 등 도구를 통해 뉴스를 본다.)</p>
3	송슬기	20 대	대학교 직원	<p>북한은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시작하면 북한 정권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행동들 다 심리전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매일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p>
4	박정웅	20 대	대학원생 석사	<p>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말로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미 익숙해졌다. 게다가 한국의 언론은 항상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뛰어나며 한미 동맹은 꼭 북한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리 무섭지 않다. (거의 매일 인터넷으로 통해 뉴스를 본다.)</p>
5	김기만	30 대	회사원	<p>북한이 몇년 한번씩 이런 말을 하니까 별일 없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신문 구독하여 매일 보고 있다.)</p>
6	임정수	30 대	회사원	<p>별일 아니다. 북한 항상 그렇다.</p>

				(가끔 naver SNS 등 도구를 통해 뉴스를 본다.)
7	주해진	40 대	회사원	진짜 일어나면 어쩔 수 없다. 도망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하는 일을 두고 외국으로 가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불가능하니까 지금 살던대로 살 수 밖에 없다. (가끔은 신문 보거나 naver SNS 등 도구를 통해 뉴스를 본다.)
8	떡볶이집 아주마	50 대		전쟁 일어나면 한국은 큰 피해 있어도 남아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북한은 뭘 달라고 싶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나면 걱정해도 소용없고 미사일 오면 다 죽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다. (매일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본다.)
9	김유은	50 대	대학원 교수 (정치학)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분명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권 멸망 할 것이다. 김정은 미쳐서 같이 죽자는 생각이 없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매일 본다.)

10	이승철	50 대	대학원 교수 (정치학)	북한의 행동의 목적은 알면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을 거이다. 북한 국내 정치 안정과 김정은 집권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강한 행위로 자기 지지 않다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리더로서 자기의 능력과 권위를 민중에게 보여 주고 싶다. 그리고 군내 장군들의 인정받고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을 구독하여 매일 보고 있다.)
11	이철송	60 대	대학원 교수 (법학)	북한의 경제 현황은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오래 못 버틴다. 북한은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어설프게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 (신문을 구독하여 매일 보고 있다.)

외국인

순번	이름	국적	나이	신분	관점이나 행동
1	왕승양	중국	20 대	대학교학생 학부	나와 상관이 없다. 관심 없다. (한국 메체로 뉴스를 안 본다.)
2	왕하이쉬	중국	20 대	대학원생 석사	많이 걱정했고 4 월초에 거의 매일 매일 신문보고

					<p>있었다.특히 4 월 10 일부터 15 일까지 너무 긴장했다. 대피소도 많이 찾았다. 그리고 선생님 찾아서 심리상담까지 했다. 부모님도 몇번이나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물으셨다. (4 월 전에 한국 메체로 뉴스를 가끔 본다. 4 월 초부터 15 일까지 매일매일 많이 본다.)</p>
3	최가기	중국	20 대	대학원생 석사	<p>좀 걱정하였다. 부모님도 걱정하셨다.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일어나고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한국 메체로 뉴스를 안 본다.)</p>
4	김 안젤리카	카자 흐스 탄	20 대	대학원생 석사	<p>부모님 너무 걱정하셔서 귀국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4 월 10 일 귀국하였고 일주일 후에 사태 좀 좋아진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 메체로 뉴스를 안 본다.)</p>

5	맹우	중국	20 대	대학원생 석사	좀 걱정을 하였다. (한국 매체로 뉴스를 안 본다.)
6	장단이	중국	30 대	대학원생 박사	부모님 걱정하셔서 비행기표 끊어서 귀국하라고 불렀지만 4월9일 전에 안갔다. 그 후에 부모님도 전쟁 대피 용품 수시로 준비하여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대피하라고 말씀하셨다. (한국 매체로 뉴스를 가끔 본다.)
7	라홀	인도	30 대	대학원생 박사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남북한간의 군사력의 차이, 전쟁의 득실을 분석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항상 한국 매체로 뉴스를 본다.)
8	유키	일본	30 대	대학원생 박사	북한이 말만 하고 있다고 믿어서 무서워하지 않았다. 신문을 보고 부모님 한번 전화 하셨는데 부모님께 설명하고 나서 다시 걱정 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평소에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한국 매체 뉴스를 보고 있다.)
--	--	--	--	--	--

주최 Host



한국국제교류재단 | Korea Found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0층
10th Fl. Diplomatic Center, Building,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www.kf.or.kr



동아시아연구원 | East Asia Institute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909 Sampoong Building, Eulji-ro 158, Jung-gu, Seoul
www.eai.or.kr

후원 Sponsor



삼양홀딩스 | Samyang Holdings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번지
31 Jongno 33-gil, Jongno-gu, Seoul
www.samyang.com



9 788992 395366
ISBN 978-89-92395-36-6